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합니다.
 제출 서류 중 학생부가 핵심이며,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는 학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학생부는 학생의 고교 3년의 학교 생활이 담긴 가장 객관적인 서류로서, 주로 무엇을(What), 언제(When), 얼마나(How much) 등의 사실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면, 자기소개서는 학생이 학교 생활에 대해 왜(Why), 어떻게(How), 영향(Impact) 등과 같은 학생부에 담겨 있지 않은 동기와 과정, 영향 등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담겨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와 상호 보완되는 서류로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의 연계성이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고,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아 아쉬운 내용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의 모습이 더욱 잘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이 학생부와 동떨어지거나 연결고리가 약하면 자기소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 하는 경우이고, 학생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반복해서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자기소개서를 받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학생부라는 뼈대 위에 자기소개서로 살을 붙이듯이, 건조한 학생부에 자기소개서로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평가자가 학생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는 거드는 역할을 해야, 자기소개서가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I. 공통 양식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작성시 유의 사항>

1.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2.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자기소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1)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점,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2)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토너먼트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5. 학생부 위주 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 활동(해외 어학 연수 등)을 작성했을 경우, 해당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유의 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 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입력하세요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1,500자 이내)

입력하세요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입력하세요

<자율문항>

※ 지원 동기 등 학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별로 1개의 자율 문항을 추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글자 수는 1,000자 또는 1,500자 이내로 하고 대학에서 선택)

Ⅲ.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동국대학교에서 작년부터 공개하는 ‘2018학년도 동국대학교 학생부전형 가이드북’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가이드북에 문항별 작성법과 서류평가 요소로서 자기소개서를 질의응답가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학생들 자기소개서 작성 및 지도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출처: 2018학년도 동국대학교 학생부전형 가이드북

step 1) 문항 분석 :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고민하기

【易地思之:역지사지】

제시된 문항을 통해 입학사정관이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문항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 “배우고 느낀 점” 혹은 “과정”에 대해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소개서 작성 시 단순한 결과를 제시하기보다는 배운 점, 느낀 점, 성장과정 등을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교협 공통 문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항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 학업역량

문항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활동 > 학교생활충실도, 전공적합성

문항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 > 인성 및 사회성

【TIP】 문항 분석 시 0점 처리 기재사항 등 유의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step 2) 학생부 분석 : 나를 돌아보며 꼼꼼하게 분석하기

【自我省察:자아성찰】

3년간의 학교생활 분석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아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그 과정에서 가장 최선을 다했던 것은 무엇인지, 많은 깨달음이 있던 활동은 무엇인지, 아쉬움이 있던 활동이 무엇인지.. 등의 생각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의 깊이와 차별성은 이번 단계인 분석과 고민의 깊이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꼼꼼한 분석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분석 예시】

학년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1	동아리 활동	00	(DGU연극부) 본교 연극부원으로 대본을 작성 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10월에 진행하는 축제에 ‘우리 할머니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고 있는 역사적 슬픔에 대해 대본을 작성하여 큰 호응을 얻음. 대본 작성 과정에서 관련 서적을 읽고,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 를 하는 등 열의를 보임. 축제를 통해 근대사에 대한 관심을 갖을 수 있었다고 하며 내년 축제에서도 역사를 소재로 대본을 작성하고 싶다고 함.

1) 대본을 작성

내가 왜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나?

대본 작성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대본 작성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었나?

2) 관련 서적을 읽고

내가 어떠한 책을 읽었었나?

그 책을 읽었던 계기는 무엇이었나?

그 책의 내용을 대본에 어떻게 반영하였나?

3)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

인터뷰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3명에서 같이하면서 나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

할머니들께 어떠한 내용을 인터뷰하였나?

【TIP】 3년간의 학교생활을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기억해내기는 어렵습니다. 틈틈이 일기를 쓴다거나, 메모를 해두는 습관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step 3)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Mind Map 그리기

【스티브잡스처럼 사고를 확장하기】

분석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게 의미 있었던 학교생활을 Mind Map으로 그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앞에서 분석한 학교생활에 대해 사고를 확장하고 되짚어 보는 단계입니다.

【Mind Map 그리기 예시】

과학탐구토론 →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

→ 팀 구성을 어떠한 과정으로 하였는지

→ 토론 주제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

→ 자료는 어디서 찾아보았는지

→ 팀내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 토론대회 날은 어떠하였는지

→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TIP】 자기소개서로 작성될 소재에 얽매이지 않고, 나에게 의미 있었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작성해봅니다.

step 4) 글로 엮기

【구술이 서말이라도 웨어야 보배】

step 3에서 그려진 Mind Map에서 자기소개서 문항 중,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글로 웨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려진 Mind Map이 통째로 활용될 수도 있고, 일부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작성한다면 조금은 수월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항목별로 진솔하고 솔직한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글로 엮은 후에는 오타자 및 분량 확인을 위한 최종점검 단계가 필요합니다.

【TIP】 최종 점검 시 오랜 시간을 두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작성된 자기소개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홀한 관리로 표절 검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VI. [FAQ] 평가요소 : 자기소개서

※ 출처: 2018학년도 동국대학교 학생부전형 가이드북

□ Q.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A.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직접 작성하는 유일한 서류이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결과 중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느낀 점, 학습 경험의 과정, 배운 점 등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직접 작성하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배운 점 등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절차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 입학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공인어학성적 및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작성 시 서류평가에서 '0점'처리 대상입니다.
-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활동(해외 봉사활동 및 어학연수 등) 등은 평가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TIP】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학습 경험의 과정, 배운 점 등의 깊이와 정도는 친한 친구, 부모님, 선생님도 모르는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1. 자기소개서 1번

□ Q1. 학업역량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이면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되나요?

□ A1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업역량 및 학습경험에 대해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학습법, 학습플래너 사용법 등을 기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과 성적은 학생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1번 문항을 통해 입학사정관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전공 학습 시 필요한 학습 역량**입니다.

대학에서 수학할 역량을 교과 성적으로만 제시하기 보다는 수업 참여(수행평가 및 과제 등), 주도적인 학습태도, 적극적인 방과후학교 참여, 비교과 활동 등을 통한 학업 역량 등 다양한 소재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토론 대회 준비과정에서의 지적 깊이를 더했던 학습경험, 독서활동을 통한 전공 학습 경험, 과제를 통한 학습 경험 등이 있습니다.

Ⅱ [다양한 학습경험의 과정을 제시한 사례]

◇ 건설환경공학공 지원

‘파동의 간섭’을 공부하면서 다리의 고유 진동수와 바람으로 인한 진동수가 일치하게 되면 공명현상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단순한 공기의 흐름이 다리 혹은 구조물의 안정성에 위협을 준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마침 제2롯데월드 고층건물에 의한 와류가 항공기 안전 착륙에 지장을 준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를 기회 삼아 고층 건물에 생기는 공기의 와류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인 분석을 하고자 관련 서적과 논문을 찾아보았지만 혼자 하기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공순이 동아리에서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토론에 임하다 보니 혼자 했을 때와는 다른 집단지성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 정치외교학전공 지원

세계지리 수업에서 스위스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지리적 특성 상 간단히 먹는 ‘ фонд유’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지역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문화, 역사, 정치 등 다양한 배경지식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표 수업 후, 개념 혹은 문제를 확장해서 보기 위해 관련된 개념과 배경 등을 정리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략)... 예를 들어 프랑스 이민자 분쟁문제에 대해 그러한 원인, 원주민과의 문화 경제적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 결과, 정부의 조치로 인한 파급효과 등 다양하게 개념을 확장해나갔습니다. 더불어 넓은 식견을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경시대화와 탐구대회 등에서 입상할 수 있었습니다...(중략)

1. 자기소개서

■ [학업역량을 파악하기 아쉬운 사례]

◇ 지리교육과 지원

... 친구들에게 지리의 개념을 설명해 주면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자신감이 생겨 교내 지리경시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3등이라는 결과가 나와 많이 놀라웠고 욕심이 생겨 이후부터 한국지리, 세계지리 등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3학년 경시대회에서는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 ▷ 상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경시대회 준비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면 학습 경험, 지적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학습방법만이 강조된 아쉬운 사례]

◇ 경제학과 지원

저는 수학을 매우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깊이를 더하기 위해 방과후학교로 수학 심층반을 신청하였습니다. 첫 시간, 선생님이 내주신 10문제 중 3문제 밖에 맞추지 못하는 제 자신이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중략)... 그 이후 개념 중심의 내용 정리 후 정해진 문제를 푸는 학습을 계획하였습니다. 매일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고...

- ▷ 학습 방법, 학습 계획 등의 내용에서 벗어나 좀 더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었던 방법을 제시해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TIP] 전공관련 학습 역량은 교과 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주어진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주도적 학습 경험 및 참여를 통한 자기발전 과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 자기소개서 2번

□ Q2. 자기소개서 2번에서 교외활동 중 학교장 허락을 받은 활동은 기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허락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 A2.

학교장 승인활동은 교육 관련 기관(교육부 및 직속 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한 행사입니다.

이런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학교장 허락을 받은 교외활동으로 간주하고 서류평가를 진행합니다.

추가제출서류는 요구하지 않으므로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교외 활동을 작성하면서도 활동 전후로 교내활동과의 연결된 내용 등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좀 더 긍정적입니다.

■ [교내외 활동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스스로 관심 있는 주제를 조사하며 주체적인 학습태도를 얻을 수 있었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학적 시각을 기르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경제 리더십 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경제신문 스크랩 및 토론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자금 운영 방식 등을 조사하였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부탁드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신문 토론동아리 활동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

■ [교내외 활동의 연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

저는 ***기업에서 주관하는 광고 포스터 전시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전시회에 포스터를 제출하려면 주제를 먼저 선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계속 광고 구상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때그때 생각난 것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략)... 2학년 때 제가 살고 있는 사회의 시사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고교생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분석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주장의 근거를 준비했습니다. ...

- ▷ 사례에서 제시된 교외활동은 학교장 승인활동이 아니므로(교육관련 기관 주관이 아님) 평가에 미반영되는 사항입니다.

[TIP] 자기소개서에 작성된 활동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된 내용과 견주어 검토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교외활동은 평가에 미반영 됩니다.

□ Q3. 자기소개서 2번에서 활동을 반드시 3개 작성해야 하나요?

□ A3

의미 있는 활동이 3개가 되지 않는다면 3개 모두 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확인 가능한 의미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결과의 나열보다는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구체적 과정, 그리고 활동 참여 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긍정적 나의 변화를 연계하여 진솔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의미 있는 두가지 활동의 과정 및 배운 점을 기술한 사례]

저는 2년 동안 또래 학습동아리에 참여하여 교사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2학년 때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활용해 직접 교사의 입장에서 모의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와 학생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강의식 수업을 준비하였는데 친구들의 집중력이 점차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업 마지막 단계로 소나기의 등장인물에 대해 토론을 주도하여 모든 친구들이 흥미를 느끼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업의 주인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중략)..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꾸준히 교내 학생 자치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 활동해왔습니다. 자치법정 법조인 역할을 맡은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양형 기준을 논의하면서 처벌을 목적으로 자치법정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의 근본적인 행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교화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고 교내 자치법정 최초로 법조인 학생들과 과별자 학생들이 같이 등교하는 프로그램을 창안하였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학생에게 별주는 사람이 아닌 함께 발맞춰 가는 교사가 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활동 참여만을 나열식으로 기술한 사례]

제게 의미있는 첫 번째 활동은 외국어 노래경연대회가 열려 사회자를 뽑는다는 말에 사회자에 지원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의 지지를 받아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지만 큰 학교행사를 망쳐버릴까 봐 걱정이 앞섰습니다...(중략)

두 번째 활동은 또래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 영어 과목 멘토로 활동했습니다...(중략)

마지막은 2학년 때 교내 독서토론대회에 참가하여 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중략)

- ▷ 1500자 글자수를 3등분하여 3가지로 채우려다 보니 마지막 교내 독서토론대회는 수상한 내용, 즉 결과만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습니다. 앞의 내용을 좀 더 깊이있게 제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TIP] 활동의 과정과 느낀 점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작성해 보세요!

3. 자기소개서 3번

□ Q4. 자소서 3번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A4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은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교과생활을 통해 지원자의 인성 및 사회성을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반드시 4개 주제에 관해 모두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인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멘토링 활동을 통해 친구들에게 정서적 측면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례, 체육대회에서 반대향 축구대회를 하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느꼈던 사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갈등을 극복했던 사례 및 그 과정에서 느낀 점 등을 진솔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문항을 기술하는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반드시 본인의 장점을 기록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생각이나 의식이 변화해간 과정에 대해 기술해 준다면 학생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생활중 갈등관리를 실천한 사례]

친구와 팀을 이뤄 **탐구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에 대해 큰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친구는 연습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했고, 결국 서로의 의견만 내세워 다투게 되었습니다. ...(중략)...그날 이후 친구를 설득하고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수상은 할 수 없었지만 꾸준히 소통을 하며 연습했던 덕분에 대회에서 우리가 목표했던 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중략)... 내 의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서로가 원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 특별한 사례는 아니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친구와의 대회 참가를 주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상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구와의 갈등이 생긴 과정부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 또 그 과정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이었던지를 사례를 통해 제시해 주었습니다.

■ [활동참여만 중점적으로 기술한 사례]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교육봉사를 하였습니다. 맨 처음 시설에 갔을 때는 생각보다 지저분하여 바로 아이들과 함께 청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8살 두명을 가르쳤는데 사탕과 과자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였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저와 수업했던 아이들이 저에게 계속 애정을 표시하였습니다. ... 계산적인 모습이 없는 아이들의 순수함이 좋았습니다.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 위 학생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중에 어떠한 것을 기술했는지조차 불분명 합니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본인이 재능기부를 한 사례를 했기 때문에 배려와 나눔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느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이 성장했고 발전하였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소개글에 불과하며, 심지어는 그 학생들이 왜 좋았는지, 그 학생들은 지원자를 왜 좋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조차 생략되어 있어, 배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봉사를 통해 느낀점과 본인이 성장할 수 있었던 역량 등을 기술했다라면 지원자의 성품이나 인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TIP] 특별한 소재를 원하는 문항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얼마나 지 갈등, 협력등의 상황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를 부풀리고 꾸며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때의 과정을 진솔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4. 자기소개서 4번

□ Q5. 지원동기와 진로계획은 어떻게 써야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나요?

□ A5.

지원동기는 진실성에 진로계획은 구체성과 실천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평가합니다.

지원 학과에 대하여 어떤 계기로 인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해당 전공의 어떤 세부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지적 탐색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진로 탐색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 학년별 커리큘럼을 나열하는 근시안적인 학업계획보다는 해당 전공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이고 실현가능한 진로계획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Ⅱ [진로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다양하게 제시한 사례]

◇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지원

저의 꿈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신소재를 연구하여 개발하는 것입니다. 금속처럼 작용하는 그래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천연 반도체 흑린이 개발된 것처럼 기존에 있던 것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신소재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중략)... 또한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조나 가공법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제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시스템공학을 복수전공하여 전문가로서의 역량 기반을 넓게 다지고 싶습니다.

◇ 국어교육과 지원

저는 일명 ‘문학소녀’였습니다. 소극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저는 문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문학을 읽으며 편협한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문학은 ‘즐길거리’이기도 하지만 ‘가르칠 거리’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 국어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문학교육연구사 공부를 통해 문학교육의 철학적 토대와 내용론, 방법론을 이해하고 특히 소설교육에 초점을 두어 소설의 교육적 가치와 교육 방법 등을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Ⅱ [전공에 대한 관심을 형식적으로 표현한 사례]

◇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지원

초등학교 때 로봇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로봇 설계와 제작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실시한 문/이과 성향 검사, 직업 흥미 검사를 통해 기계와 로봇 관련 학과가 저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임도 확인하였습니다. 학과 진로 시간에는 커리어넷의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기계로봇 공학자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동국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를 알게 되었으며, 이 학과에서 체계적인 학습과 연구를 통해 저의 꿈을 펼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무엇을 연구하는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은지, 특히 무슨 분야를 연구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아 아쉽습니다. 지원 전공에 대해 형식적인 탐색이 아닌, 본인만의 진정성 있는 구체적인 탐색의 경험이 드러났다면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 예상됩니다

Ⅱ [직업계획을 단순하게 기술한 사례]





◇ 회계학과 지원

저는 수학 교과 내신이 계속 1등급일 정도로 수학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또한 앉아서 진득하게 공부할 수 있는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학과에 진학한다면 기초 수학과 경제학을 두루 섭렵하여 기본기부터 다진 후 공인회계사 시험을 통해 동국대학교를 빛내는 회계사가 되고 싶습니다. 회계사가 된 뒤에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큰 회계법인에 입사하여 3년 정도 겸손하게 일을 배울 것이고 이후에는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법인 사무실을 내고 일하고 싶습니다.

▷ 진로 계획은 직업 계획이 아닙니다. 본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해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넓혀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TIP] 입학사정관은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을 통해 지원자가 해당 전공에 대해 얼마나 넓게 살펴보았으며 깊이 있게 탐색하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공에 대한 지원자의 이해도와 발전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문항으로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을 단순 나열식으로 언급하거나 불분명한 미래에 대해 추상적으로 기술하는 것 등은 지양하는 편이 좋습니다.

V. 주요 대학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경희대		※ 2018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I. 서류평가 이렇게 합니다. 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토대로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4가지 평가요소를 통해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합니다.		
II. 자기소개서 TIP 학교생활기록부가 학교생활을 통해 지원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실과 결과 위주의 기록이라면, 자기소개서는 동기와 과정 중심으로 기록한 '지원자의 고교 3년을 들려주는 해설서'입니다.		
1. 지원학과에 적합한 인재임을 부각하세요! 자기소개서는 경험의 폭과 깊이, 지원학과에 맞는 역량과 자질을 가진 인재임을 호소하기에 적합한 소재나 활동 경험이 중요합니다. 지원학과에 적합한 자기소개서의 소재와 경험은 그 누구보다 수험생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겠죠. 이러한 내용을 담아낸다면 자신만의 독창적인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강점을 간결하고 분명한 문장으로 맥락화 하세요! 자기소개서에서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길고 장황하게 쓰기보다 사실 중심으로 다양하고 공감도 높은 소재를 적절히 배열한다면 글의 맥락은 더욱 뚜렷해지고 호소력은 높아지겠죠. 문장은 최대한 단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동기와 과정, 인과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야 해요!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에 의해 사실 위주로 기록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 자기소개서는 인과관계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실적 유무의 나열보다는 그 실적 혹은 성공을 경험한 사실과 활동이 지원자에게 미친 영향과 변화를 보여주면 좋겠죠. 결과만이 아닌 동기와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길 바랍니다.		
4. 대학의 평가요소에 맞게 학생부와 연계해 작성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돼 있는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어떤 것을 부각하는 것이 본인의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 보세요. 평가요소를 먼저 고려해 소재를 결정하는 것 또한 자기소개서 작성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학사정관의 눈으로 본 자기소개서 평가 사례		
구분	내용	
긍정적 평가	1. 지원학과와 관련해 학업 기초 역량을 쌓은 경험: 예) 감명 깊게 읽은 책의 한 구절, 수업 중 에피소드를 통한 지원학과 결정 계기와 노력, 2. 동아리 활동에서 인상 깊었던 경험, 수행평가 준비 과정에서 배운 점 등 기술 3.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는 다양한 소재: 예) 학교생활기록부 상에 언급된 강점을 구체적이면서 다양한 근거와 소재로 기술 4. 독창적·체계적으로 작성된 지원학과와 관련한 자신만의 경험과 활동 예) 사학과 지원자가 박물관 견학 시 해설서 내의 사실 관계 오류를 발견, 민원 제기와 해결 과정 기술 5. 참여 동기를 명확히 기술해 자기주도성이 표현된 경험과 활동: 예) 책 선정, 동아리나 캠프 참가 선택의 이유 기술	
부정적 평가	1. 다소 피상적이고 진부한 소재: 예) 부모나 친지의 지병을 계기로 의대나 약대 지원 2. 솔직함이 지나쳐 단점을 장황하게 기술: 예) 가출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 3. 분량이 지나치게 적어 성의가 없어 보이거나 평가 근거 부족 4. 불필요한 사족이 너무 많은 문장	
고려대		※ 2018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
I. 서류평가 고려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평가는 제출 서류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이뤄집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특성소개서는 고교별 교육 과정의 특성과 동아리 및 수상 운영 현황 등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이해를 돕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제출 서류		
교사	학생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 소개서	+
 교사 추천서		 학교특성 소개서

1. 자기소개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평가는 주어진 고교 환경 안에서 학생이 기울인 노력과 성장 과정, 학교 생활의 성실성과 우수성 등을 고려합니다. 더불어 인성, 전공 분야에 대한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평가자는 활동 결과에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 해당 활동을 통한 학생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학생의 경험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II.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전부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개성과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교내 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배우고 느낀 점,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큼니다. 자기소개서는 본격적 서류 평가에 앞서 지원자가 능동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마지막 서류이므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많은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자기소개서 작성에 투자하면서 ‘혼자 써도 괜찮을까’, ‘사교육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하고 고민할 만큼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화려한 실적을 나열하거나 유려한 문장으로 아름답게 포장해 작성한 자기소개서는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조금 투박하고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나만의 이야기로 풀어낸 자기소개서를 기다립니다.

이제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각 문항에서 제시하는 답변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고민하는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모범 답안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문항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1번 문항은 지원자의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학문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 자신만의 학습 방법,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학업 성취를 이룬 뜻 깊은 경험 등 학업 관련 경험과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내신 등급이 상승했거나 경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등 실적을 나열하기보다 그런 학습 경험이 지원자에게 미친 영향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게 작성하세요.

NG 사례

저는 수학을 관심 많습니다. 내신을 향상시키려 매일 문제집을 풀고 궁금한 내용을 선생님께 질문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성적이 점차 향상돼 2학년 이후에는 출근 수학 과목에서 1등급을 유지하는 한편, 수학경시대회에서 지속적으로 금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저는 수학을 참 좋아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까, 어떤 공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정말 즐겁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는 수학 공식 뒤에 숨겨진 논리와 철학을 알아내려 관련 도서를 찾아 읽고, 의문이 생기면 선생님께 몇 번이고 찾아가 질문합니다. 이렇게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즐기고 좋아하니 내신 성적은 자연스레 향상됐습니다. 수학경시대회에서는 모범 답안과 다른 창의적 접근으로 문제를 풀어 선생님께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문항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1500자).

2번 문항은 지원자가 경험한 활동 중 자신의 특성과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는 사례를 중심으로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례를 선정해야겠죠? ‘3개 이내로 기술’이라 돼 있으나 반드시 3개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자신이 가장 정성과 노력을 들여 수행한 활동 또는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던 경험을 찾으세요. 이때 반드시 성공과 성취를 이뤄낸 경험일 필요는 없습니다. 좌절과 실패의 경험이라 할 지라도 그것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이 있으면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단,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이면에 담긴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아내면 더 좋습니다.

NG 사례

과학 실험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며 과학경시대회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관심 분야에 대한 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제 고등학교 생활은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해 ‘어렵고 힘들게’ 지내는 시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근 화학에 관심 많았던 저는 고등학교에서도 화학 관련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는 화학 동아리가 개설돼 있지 않고, 정규 동아리를 새로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 몇 명과 자율 동아리로 화학 실험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고 싶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선생님께 구체적 활동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후 동아리 개설을 허가받았습니다. 저는 직접 실험 주제를 선정하고 실험에 필요한 도구 대부터 실험 보고서 작성까지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서 배운 실험뿐 아니라 **좀 더 심화된 실험까지** 계획하고 시행하면서 ‘화학’이 라는 학문의 매력에 푹 빠졌고, 제 꿈을 좀더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 이때 ‘**좀 더 심화된 실험**’은 어떤 활동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실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원자가 느끼고 배운 점을 함께 적으면 좀 더 풍성한 글이 될 수 있겠죠.

문항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3번 문항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경험을 통한 지원자의 인격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생활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한 경험, 친구와 협력해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을 한 경험,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친구 또는 선생님과의 갈등 사례 등을 해결한 경험을 떠올리세요. 이런 경험과 사례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해당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충분히 생각하고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던 활동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세요.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된 특별한 사례를 구성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는 스스로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낸 것입니다.

NG 사례

저는 3년간 반장으로 선출돼 학급 회의를 주재하고 친구들 의견을 하나로 모아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저는 ‘잘 말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항상 제 의견을 말하기 전에 친구 이야기를 먼저 듣고, 저마다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친구들은 ‘인내심이 많은 친구, 이해심이 넓은 친구’라 합니다. 이런 면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 저는 3년 내내 반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학급 대표로 활동하면서 한 사람의 불만도 없이 민주적 합의 절차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되던 언제나 다수의 의견에 맞서려는 몇몇 친구와 개인적으로 좀 더 가깝게 지내면서 그 친구들의 입장을 더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닫고 부정적 의견을 내던 친구들이 반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오히려 긍정적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를 보면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4번 문항. 해당 모집단위 지원 동기를 포함해 고려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하세요(1000자).

4번 문항은 지원 모집 단위를 선택한 동기와 이유를 적고, 1~3번 문항에서 표현할 수 없던 자신의 장점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게 구성된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등학생의 진로 희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지원한 전공을 왜 선택했는지,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해당 전공에 적합한 인재인지, 앞으로 자신이 가려 하는 진로에 해당 전공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는지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진로 희망이 변경돼 자신의 활동 경험과 지원 전공이 일치하지 않으면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풀릴 만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고려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어떤 내용을 적길 바라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원자의 특성과 장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활동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적으면 됩니다.

단, 고려대학교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 기재하거나 지원자와 고려대학교의 인연에 대해 기술하느라 아까운 분량을 낭비하지 마세요.

고려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가 ‘태몽이 호랑이이라서... 아버지의 모교라서...’는 아니겠지요? 고려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할 만큼 어떤 면에서 지원자가 우수한 인재인지 기술하기 바랍니다.

NG 사례

제 꿈은 경제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 발전을 생각할 때 경제 성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학자가 돼 나라 발전을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같은 현상을 두고 미래 상황을 예상하는 경우 학과마다 다른 해석과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경제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경제 과목이 개설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는 혼자 고등학생이 배우는 경제 교과서를 구해 읽고 대학생이 많이 본다는 원서로 공부하면서 경제학자라는 꿈을 조금씩 구체화시켰습니다. 지금 저는 ‘국제 경제학’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이 환율 변동을 가져오고 환율 변동이 주변 국가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과정과 효과가 아주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장차 저의 진로 희망은 국제 경제학, 특히 국제 금융 분야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의 TIP

1. 자신의 이야기를 쓰세요.

화려한 실적이거나 우수한 활동 경험을 사례로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스스로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세요. 솔직하고 담담하게 쓴 이야기가 평가자 마음을 움직입니다.

2. 결과보다 과정을 보여주세요.

좋은 결과로 이어진 성공 경험만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보다 ‘어떻게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됐는가’에 주목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최선을 다한 경험이 있었는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극복했는지, 그런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차분히 생각하세요.

3.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과연 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을 다 읽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자기소개서에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제출 서류의 모든 부분을 정성껏 읽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적는 것은 자신의 장점과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로 활용하세요.

4.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 양식에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12가지가 포함돼 있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에는 국문(한국어) 작성 원칙, 유사도 검색 여부, 0점 처리사항 등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학마다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지원 대학의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자기소개서 Q&A

Q1. 다른 대학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고려대학교에 제출해도 괜찮나요?

A1. 팬클럽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면 동일 대학의 다른 전형 또는 다른 대학교에 똑같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더라도 유사도 검색 등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재수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년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와 동일한 내용을 제출해도 됩니다.

Q2. 눈에 띄게 써야 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단락별로 제목을 달거나 명언을 인용하거나 다양한 문장 부호를 활용하는 등 자기소개서를 눈에 띄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었는가에 관계없이 자기소개서 내용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서강대

I. 자기소개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 왜 써야 할까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생을 평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여러분의 고교생활 3년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고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수시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숨어있는 지원자 개인의 노력 및 성장 등을 살펴보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읽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몇 점을 취득하였는가? 무엇에 참여하였는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를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자기소개서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적히지 않은 본인의 노력과 성장포인트가 담겨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왜’ 써야 하는지부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글쓰기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2. 무엇을 써야 할까요?

많은 지원자들은 다른 친구들과 다른 “특별한 무엇”을 경험해야 한다는 오해를 합니다. 또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는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아주 평범하고 남들과 비슷하여 수시를 지원할 수 없는 학생부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명칭이 같다고 과정과 노력 그리고 성장의 포인트가 같을 수 있을까요?

지원자에 따라 ‘명칭’이나 ‘과정’ 중 일부가 낯설고 비슷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 과정, 성장 등을 모두 합친다면 지원자가 자신만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서의 교실수업, 과제해결, 동아리활동, 교실 안에서의 다양한 경험, 그리고 교실 밖에서 자기주도적으로 경험한 모든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What I did), 과정(How I did), 성장(Whar I learned)으로 구분하여 생각날 때마다 정리해 보세요.

학생에 따라 개별 명칭이나 과정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개인의 경험을 합쳐보면 지원자들은 모두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PRE-학생부종합전형 WORKSHEET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기에 앞서 텅 빈 자소서 양식을 보며 허허벌판에 혼자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마련입니다.

서강대학교 2018학년도 입학가이드북 43페이지를 활용해보면, 고등학교 3년간의 모든 경험들을 떠올리며, 스스로가 몇 점, 몇 등급 학생이 아닌, 어떤 사람(WHO I AM)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미리 써보는 『학생부종합전형』 WORKSHEET

연번	MESSAGE (DOES)	MESSAGE (HOW I DO)	ANSWER (WHAT I LEARNED)
1 000	반도체 비전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교육받은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쌓고, 시장-기업의 요구에 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재가 되기위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해에 다양한 분야를 접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학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분야를 이해하는 것보다 분야를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2 000	한국어 사건 사고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교육받은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쌓고, 시장-기업의 요구에 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재가 되기위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해에 다양한 분야를 접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학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분야를 이해하는 것보다 분야를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3 000	한국어 사건 사고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교육받은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쌓고, 시장-기업의 요구에 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재가 되기위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해에 다양한 분야를 접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학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분야를 이해하는 것보다 분야를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4			
5			
6			
7			
8			

WHO I AM

6. 마지막으로 욕심을 버리세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지원자의 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하였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를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들을 쫓 나열하는 것보다는 학생이 강조하고 싶은 본인의 모습 또는 태도, 그리고 그 역량이 잘 드러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학생을 표현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II. 문항별 작성법

1. 인재상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1% 리더 : 이웃을 섬기는 리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창조적인 인재, 진리를 추구하는 정의로운 인재,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국제화된 인재, 학문적 수월성을 지닌 지성인

2. 자기소개서 문항별 작성법

1번 문항.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학업 역량’ 보여주기

1) 1번 문항의 핵심 키워드는 ‘**학업 역량**’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서강대에서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2) ‘**느낀 점**’에 충실한 나머지 학업을 하며 힘들었던 경험만을 기술하는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반성문이 아니라 학생부 등을 통해 드러난 지원자의 학업 역량을 더욱 강조하고 보충하는 ‘소개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번 문항.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1500자 이내)

: ‘구체적인 성장가능성(역량)’ 보여주기

1) 2번 문항의 핵심 키워드는 교내 활동을 통해 드러난 지원자의 ‘성장가능성(구체적 역량)’입니다.

활동 자체를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활동 속에서 지원자가 강조하고 싶은 본인의 역할 및 역량을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때, 전공과 관련한 역량을 미리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지원자와 같은 학교에서 교과 성적과 활동 내역이 유사한 학우가 동일한 대학 및 모집단위에 동시 지원한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본인을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할 것인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3) 활동 명, 수상명만 강조한다면 본인을 남과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

3번 문항.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나눔, 협력’ 나눔을 키워내리지 말고 나를 드러내기

나눔, 갈등 관리, 협력을 실천한 사례를 기술하는 3번 문항을 작성할 때 ‘나눔을 키워내리도록 내가 강조 된다’는 생각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 내 갈등 관리에 대해 작성할 때, 갈등 사례의 심각성 자체를 묘사하기보다는 이를 해결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한 지원자의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문항. 지원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대학 입학 후 학업 또는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하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1,000자 이내): 서강대를,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및 학업 계획 보여주기

1) 4번 문항은 자율문항으로,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대학 입학 후 학업 및 진로계획에 대해서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2) 우선 지원 전공이 지닌 특징, 교수진, 커리큘럼에 대해 간단히 조사합니다. 이를 1, 2, 3번 문항을 통해 드러난 지원자의 특별한 역량과 접목해 기술하는 것이 나만의 4번 문항을 작성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

I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

이는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현재와 미래의 모습입니다.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은 미래를 개척하고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
- 학교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
-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

서울대학교는 우수한 학업능력과 적극적인 학업태도를 지닌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리더’나 ‘진취성’이란 단어가 다소 거창하여 구체적인 개념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멀리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모습으로 완성된 인재를 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차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1. 자기소개서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단순히 수능 몇 점 또는 내신 몇 점의 점수만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서울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을 정량화된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파악합니다.

여러분이 서울대학교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평가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지 꿈을 가져 보십시오.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현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서울대학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II 자기소개서 특강

서울대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과 의지’를 지닌 채 ‘지식의 누적과 활용’을 잘하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과 의지’에서 지원동기를 표현하고 ‘지식의 활용’은 비교과활동 등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으로 풀어야 합니다.

1.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과 의지 : 1번 학업능력 향상위해 노력에서 지원동기 표현

1)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을 뽑는다. 학생들은 그것을 ‘표현’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나는 이 과에 가고 싶다’는 표현을 하는 학생이 적다. 지난해에는 지원 동기 란을 자기소개서에 만들어 서울을 시켰으나 올해는 뺐다. 그러니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생겼다. ‘이 과를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자리가 밀렸다. 학생이 ‘이 과에서 공부하고 싶느냐’를 보여줘야 한다”

2) ‘이 과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직업과 결부되는 것이 아니다.

“직업과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것이 별개일 수 있다.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CEO가 되고 싶다는 것도 가능하다. 대학입장에서는 이상하지 않다. 철학을 전공하니 ‘철학과 교수가 돼라’고 하지 않는다. 직업은 학생의 관심사이자 대학의 관심사가 아니다. 대학 4년간 무슨 공부를 할 것이며 노력할 의사가 있는지 또 준비가 되어있는지가 대학의 관심사이다. ‘이 직업을 갖기 위해 이 과에 와야 한다’는 식의 서술은 낮은 수준의 의지이다.”

2. 지식의 누적: 내신, 수상, 경시대회 등 정량적 평가요소, but 준비하면서 어떤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

지식의 누적은 내신 성적과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수상, 경시대회 등의 정량적 평가요소라고 설명하며 점수가 좋을수록 유리하지만 합격율 100% 담보하지는 않는다. 즉, ‘지식의 누적’에 대해서는 “내신, 수상실적, 경시대회 등이 해당된다.

1) 내신은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양을 얼마나 안 틀리고 잘 견디느냐를 보여준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내신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다만 100%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다.

2) 경시대회에서 금, 은, 동상을 수상했다면 금상이 더 좋다고 보지는 않는다. 둘 다 잘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경시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성장을 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 자소서 작성에서 지원동기를 밝히고 비교과활동을 통해 어떤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해왔는지 서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 지식의 활용: 스스로 공부를 해서 알아갈 수 있는 능력 (독서, 동아리활동, 글쓰기경험, 탐구활동), 지식의 누적보다 더 중요

1) 지식의 활용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 이다.

‘지식의 누적’과 대비해 더 중요하다. 스스로 해나간 것과 학교 프로그램 안에 몸만 들어간 것은 발전 가능성의 차이에서 완전히 다르다.

2) 대학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것을 스스로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스로 알고 싶은 것을 알아본 경험이 있으면 대학에 와서 가르쳐 준 것 밖에서 알아야 할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런 경험/훈련과 기술을 익혔다는 것이 지식의 활용이다. 독서활동, 동아리활동, 글쓰기 경험, 탐구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 독서활동에서는 왜 그 책을 읽었느냐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책을 분명히 읽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책의 내용을 쓴다. 우리는 왜 그 책을 읽었는가를 알고 싶다. 이것이 지식의 활용이다.”

4. 협동/협력: 중요 덕목, 결과보다 협동 경험과 협동하는 것을 익혀나갔는 지가 중요

1)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협력을 해서 무언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협력을 해야 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2) ‘프로젝트를 선생님께서 주셨는데 5명이 조가 되었지만 4명이 관심이 없어 내가 혼자 밤을 샌 끝에 결과를 만들었다’는 식은 좋지 않다. 대학교수들 눈에는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 그 일은 지식을 쌓는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다. 협력 경험을 보려 하는 것이다. 팀플레이는 놀라운 결과보다 협동/협조하는 것을 익혀나갔는지를 본다.”

III. 자기소개서 작성은 이렇게 하세요

자기소개서는 그동안 여러분이 학교생활에서 열심히 노력해온 모습을 자신의 글로 나타낼 좋은 기회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 중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을 담아 주기 바랍니다

- . 가장 힘들게 또는 신나게 했던 공부 경험과 공부 방법
- .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소중했던 경험
- . 열심히 노력해온 일, 많은 시간을 쏟은 일
- .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
- .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사례 또는 친구와 함께 했던 의미 있는 활동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많은 부담을 느끼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자기소개서라고 믿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교생활 대부분을 파악하고 평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나만의 특성을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보여주면 됩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 모습을 담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나만의 모습을 나만의 목소리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1. ‘나’, ‘나의 노력’에 대해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대학에 지원하는 동기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등학교 기간을 돌이켜 보며 스스로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열정을 쏟아왔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봅시다. 내가 노력해왔던 많은 일들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실만을 나열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느낀 점과 나의 생각을 담아보세요. 어떤 동기와 목적,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왔는지,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았는지를 기록해 봅시다.

2. 나의 모습, 나의 생각을 나의 목소리로 담아 주세요

다른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참고로 하다 보면 나만의 생각이나 나만의 독창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조언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나만의 생각과 어투로 나만의 개성을 나타내 보세요.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것만을 기술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신만의 언어로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좋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이 첨삭하여 만들어진 자기소개서로는 학생 본연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3.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그대로 나열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수상경력을 단순히 나열하여 대회명, 수상 일시, 수상 등급 등을 적는데 그치는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지원자의 숨겨진 특성, 자질, 노력 등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기보다는 같은 경험, 같은 수상실적이라도 특별히 노력한 과정이나, 어떻게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공부해왔는지 등 왜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는지를 나타내 주기를 바랍니다.

4. 고등학교 기간 중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성장과정을 연대순으로 늘어놓거나 가족관계를 길게 나열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지원자의 성격이 형성된 배경 등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의 자질과 학업능력을 확인하고 우리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므로 고등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자기소개서 “NG” 예시

저는 고등학교 기간 동안 교과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국어와 수학 과목은 모두 1등급을 받았으며 교내 독서 감상문 대회와 수학 경시대회에서 각각 금상과 은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학경시반 활동을 하였습니다. 2학년 때부터 해왔고 친구들 6명이 수학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학교 공부와 더불어 독서는 저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독서를 통해 저는 수업시간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문학시간에 선생님의 추천으로 읽은 황석영님의 ‘오래된 정원’이라는 소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읽는 내내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글을 읽어가면서 한국 현대사의 굴곡이 주인공 남녀의 삶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점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역사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그 후 교내 독서 감상문 대회에서 이 책을 주제로 쓴 글이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과목 중에서 수학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친구들 6명이 수학경시반을 만들어서 활동하였습니다. 3학년 때는 부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주제를 정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서로 토론도 하고 문제를 풀기도 하였습니다. 수학 가운데 미적분은 어려우면서도 수학적 사고가 여러 방면에 응용된다는 것을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이 수학경시반 활동은 문제 풀이보다는 수학의 원리와 기본 개념을 스스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토론과 다양한 독서에 매진했던 노력이 교내 수학 경시대회 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5.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해 주세요

자기소개서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특성이나 자질 등을 나타내야 하지만, 이것이 곧 감정적인 내용을 서술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소개서에는 구체적인 경험이나 일화 등을 중심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아주세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균형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상투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피해 주세요

자기소개서는 남과는 다른 나를 표현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투적인 문구나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문구로는 입학사정관에게 ‘나’를 표현하고 자신의 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수 없습니다. “반장 역할을 잘 해냈다.”, “열심히 하겠다.” 등의 문구로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막연한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경력보다는 임원 활동의 계기나 동기,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 경험, 이를 통해 향후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기소개서 “NG” 예시

2학년 학급 부반장: 저는 리더십과 봉사성이 우수합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2학년 부반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매사에 열심히 한 결과 반장보다 더 나은 부반장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2학년 때 처음 부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였습니다. 사실 반장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 서운하기도 하였지만, 반장을 도와서 학급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학급 친구들끼리 ‘하루 한 번씩 칭찬하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게 여기거나 장난스럽게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도 모르게 기분 좋은 말을 나누는 것이 서로의 습관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학년을 마칠 때 친구들이 ‘반 분위기가 밝아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조그만 생각의 차이가 매우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7. 독서경험을 기술하는 4번 항목에도 ‘자기 생각’을 담아주세요

자기소개서 독서 항목은 지원자의 독서 경험을 통해서 지원자의 생각을 보여주는 자기소개서 안의 또 다른 자기소개서입니다. 따라서 책의 줄거리 요약이나 내용 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던 책을 3권 선정하여 그 책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떤 생각을 하게 하였는지, 또는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등의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선정은 지원하는 모집단위와 관련성이 없어도 됩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책을 선정하여 경험과 생각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IV. 자기소개서 문항별 작성 사례

※ 사례 출처: 서울대 아로리

1번 문항.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視而不見, 보지만 보지 못했던 세계 배움은 ‘見’을 선물해주었습니다. 세 단계의 학습과정을 통해 見聞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학습경험은 ‘인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내용에 접근하였습니다. 신문에서 터키의 한 해변에 차갑게 식어있는 꼬마 시리아 난민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난민으로 떠돌면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모습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법과 정치 시간에 평등,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며 그동안 당연시했던 이념들이 그렇지 않았음을 깨닫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호기심은 끊임없는 생각과 독서로 이어져 배움의 폭을 넓혔습니다. 법과 정치 시간에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에로의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와 같은 개념들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시대에 따라 자유의 정의와 국가의 역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200년 전의 프랑스 인권선언과 현재의 UN 세계인권선언의 차이점이 궁금해졌습니다. 비교를 통해 인권의 개념은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음을 알았습니다. 인권은 시대를 반영하면서도 변화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힘이었습니다. ‘The Help’, ‘나는 말랄라’ 등의 책을 통해 인종, 성차별, 교육소의 등의 다양한 인권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습득한 지식과 깨달음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해결방법을 고민하던 과정들은 UNESCO 동아리에서 인권보장 캠페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알리고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서명, 모금 운동을 하여 세계시민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인권은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써 보장됨을 알고 책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배움을 통해 하나씩 알아갈수록 세상은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고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끝없는 질문과 확장을 통한 배움은 인류학과에 진학해서도 인류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넓고 깊게 보하고 탐구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 2017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

2학년 영어 수업은 여러 연설을 익히고 암송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 J.K. 롤링의 "Failure meant as stripping away of the inessential."이라는 말은 실패를 두려워 하던 제게 큰 깨달음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만의 'Address Mini Book'을 만들어 인상 깊었던 구절을 적고 감상을 영어로 썼습니다. 자연스럽게 듣기, 말하기 훈련이 되었고, 3학년 때도 계속하여 Mini Book을 채워나갔습니다. 영어를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삶에 방향성을 세울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문학기행에서 나희덕 시인을 만나 날카로운 감각과 언어에 대한 예민함에 감명받으면서 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학년 때 교과서 속 기형도 시인의 <홀린 사람>을 번역하는 선택 과제를 하였는데, 반대로 영시를 한국어로 번역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The Road Not Taken>을 번역하고, 영어로 감상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영어선생님께 첨삭을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법상 오류를 고쳐주시고 선생님의 생각, 제 감상에 대한 의견까지 적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감상을 위해 시를 읽으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시를 오래 읽으며 감상하는 연습을 하였고, 3학년이 되어서도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주변을 면밀히 관찰하고 생각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시란 온몸의 감각을 깨우는 햇살과도 같아 시를 읽고 나면 제 자신이 파릇파릇한 새싹으로 다시 태어남을 느꼈습니다. 특히 <Sympathy>는 제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영시들을 감상하던 중 셰익스피어의 <Sonnet66>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작가의 개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제게 영어선생님께서는 <영문학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영문학사>를 통해 좋은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 관습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 2016 인문대학 인문계열 -

방방 뛰놀던 시절, 어머니의 권유로 피아노와 서예를 접하며 차분히 앉아 집중하는 태도를 길렀고, 초중 6년 간 붓글씨와 한자를 배우면서 학습 내용을 곱씹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게 중 3때 잠시 접한 보습학원의 경험은 불편함으로 각인 되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학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은, 고교 시절 사교육을 단 1시간도 받지 않게 된 바탕이 되었습니다.

사교육 없이 해낼 수 있다는 경험적 확신을 갖고 있던 저였지만 영어 공부만큼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친구들과의 실력 격차를 느끼면서 영어가 두려워 졌고, 혼자 공부하는 것을 포기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다잡고 선생님께 조언을 청하며, 지습 시간에 매일 난이도 있는 지문을 꼼꼼히 분석해 나갔습니다. 이후 월등히 나아진 성적에 자신감을 얻었지만, 무엇보다 학습과정에서 겪었던 작은 실패들을 스스로 극복했던 경험 자체가 제게 큰 자산으로 남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원에 가지 않아 생긴 여유는 제게 ‘다른’ 기회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교내 독서프로그램과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독서 태도를 점검하게 된 것입니다. 발제문 작성을 위해 책을 구조적으로 읽다보니 고민 없이 책장을 넘겨 왔던 점을 발견하였고, 책 읽는 흥내만 내던 자신을 반성하였습니다. 이후 독서량에 연연하지 않고 사유에 중점을 두는 독서 습관을 키우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은 무엇보다 사회탐구 과목의 매력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공간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다양한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통섭적 사고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히 수차례의 답사 과정에서 공간 해석의 즐거움을 맛본 저는 튼튼한 지적 토대를 쌓아야겠다는 생각에, 지리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윤리, 세계사 등 다양한 탐구과목을 배울 때, 점수만을 위한 공부를 넘어 궁금증을 해결해 가며 기초를 다졌습니다. 저는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공간 현상을 조명하고 새롭게 해석하여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시대의 화두를 던지는 지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 2015 지리학과 -

저는 과학에 흥미가 많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과지식을 토대로 보다 심화된 지식을 얻고 확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1학년 생명과학 시간에 ‘홍분의 전도’를 배우며 식물의 생체전류 현상이 궁금해져서 이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식충식물과 일반 식물은 전류의 양상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어서, 과학영재학급에서 ‘전위차 측정을 통한 식충식물의 자극에 관한 민감성 탐구’라는 주제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1년의 탐구기간을 거쳐 생체전류는 포충활동의 유무가 아니라 자극에 대한 능동성과 관련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생명과학에서 시작했지만, 연구를 진행하며 물리 지식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한 분야만의 문제인 것 같아도, 과학의 다양한 영역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3학년 물리 시간에 배운 전자기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접목시키자 생체전류 연구내용이 더 정확히 이해되고 같은 내용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에서는 물리적인 자극을 전기신호로 어떻게 바꾸는 지까지 관심대상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원리탐구반 시간에 압전소자를 조사 발표했고, 그 과정에서 기계적 에너지와 전기적 에너지 간 변환의 원리와 비대칭적 결정구조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여러 교과 내용을 연계하여 생각하는 습관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던 내용과 경험한 내용, 그리고 새롭게 배운 내용들을 연결하다 보면 재조명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영역에 대한 탐구심으로 확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학문 간 구분에 국한되지 않는 사고의 중요성도 깨닫고 이런 융합적인 태도를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로 확장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과 교과 간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론적, 경험적 지식을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 2017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

모든 생물은 ‘소우주’라고 할 만큼 정교하고 복잡한 생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수업을 들으며 이 원리에 매료된 저는 3년 동안 아름다운 생명의 원리를 이해하고 또 이를 복원시키는 방법을 탐구해보려 노력했습니다.

물리시간에 빛에 대하여 배웠을 때 ‘빛과 생명과학을 연결시킬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친구들과 과학 탐구 대회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인 광유전학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인 채널로돕신을 이용하여 신경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하는 광유전학은 살아있는 세포의 활동을 아주 정교하게 조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서 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동물행동치료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광유전학에 대한 탐구를 계기로 개체의 행동은 결국 신경계의 영향을 받으므로 행동치료는 신경과학과 함께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에게도 이 광유전학 기술을 응용한 치료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면 동물심리학적인 신경치료를 발전시킬 수도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제가 “동물행동심리학”이라는 분야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은 서울대 교교생 수의학 아카데미에 참여하고부터였습니다. 그전에는 수의사가 신체적으로 다친 동물만 치료한다고 생각했는데, 동물행동심리 전문가의 강연을 들으면서 아동심리학과 비슷한 동물행동심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연 후 동물병원을 견학했을 때는 동물의 아픈 마음과 그로 인한 이상 행동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직 미약한 동물행동심리 치료의 보급에 힘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특히 TED에서 들었던 심장전문의의 강연에서 뜻밖으로 수의학이 의학보다 더 앞선 부분이 많으며 특히 호르몬과 행동치료 면에서 그렇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앞으로 수의학의 신경행동치료적인 면을 앞장서서 연구하여 궁극적으로 종을 넘어서는 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 2017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

고등학교 생활 동안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배움의 즐거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과학 시간에 편동풍 파동에 대해 배우면서 기압골의 상승기류, 하강기류의 발생 원인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조사를 해본 결과 와도이류와 온도이류를 이용해 이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온도이류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과 비슷하다는 것을 유추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와도이류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지구환경과학부에 진학해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알아갈수록 새로운 사실과 궁금한 것이 많아졌고 배움이란 호기심을 채워가는 끝없는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기상현상에 관심이 많던 저는 학교에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날씨예측에 관한 강의를 듣고 기상전문가라는 꿈을 확고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하여 세계에서 인정받는 알고리즘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강의 내용을 배웠을 때 그 과정에 참여해 한국형수치예보시스템의 국제화에 이바지 하고 싶다는 포부가 생겼습니다.

2학년 때 생명과학이 어렵게 느껴져 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부방식이 잘 못 났다는 것을 깨닫고 3학년이 되고 나서는 생명과학을 암기 위주가 아닌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DNA복제과정에서 프라이머로 인하여 DNA가 짧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선생님께 질문을 해 답을 얻어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질문을 통해 DNA복제 과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유 리보솜과 소포체 부착 리보솜의 기능, 골지체에서의 단백질 분류방법은 분자생물학 책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2016 지구환경과학부 -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수학을 즐겁게 공부하다 보니 다른 과목을 수학과 연관시켜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과학적 사고의 기반은 수학이라고 생각하여 과학과목을 수학과 접목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3학년 생명과학Ⅱ수업시간에 중합효소연쇄반응에 대해 배울 기회가 있었고, 선생님께서는 3회 시행 때 표적서열과 염기서열이 일치하는 DNA절편이 2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문득 3회 이상의(n회) 시행 시 DNA절편의 개수를 수열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학과 접목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각 시행과 그 다음 시행과의 관계를 통해 점화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일반항을 각 시행 당 표적서열과 염기서열이 일치하는 DNA단편의 수로 두었더니 점화식을 짜기 힘들었습니다. 중합효소연쇄반응의 4회 시행까지 직접 그리면서 규칙성을 발견했고 일반항을 각 시행 당 표적서열과 길이가 같은 새로 생기는 단일가닥의 개수로 두어 점화식을 유도해 내었습니다. 점화식을 풀며 그것의 일반항을 구했고 각 시행의 표적서열과 길이가 같은 DNA분자는 바로 전 단계까지의 모든 표적과 길이가 같은 단일가닥들을 복제시켜 만들어 진다는 것을 이용해서 표적서열과 염기서열이 일치하는 DNA단편의 일반화된 개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점화식을 유도하면서 DNA가 복제되는 부분과 방향을 정확히 따졌고 이것은 DNA복제에 관한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 과학적 사고가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을 해본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한 자신감은 물리나 화학을 공부할 때에도 최대한 수학적인 접근을 통해 이론을 증명하려 노력하게 만들어 주었고, 보다 깊고 명확한 과학이론의 이해를 돕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도 여러 과목들과의 접목을 통해 단순 이론의 이해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융합하며 이해하는 과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2016 전기정보공학부 -

수학을 나름 열심히 공부했지만 수학 점수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2학년 여름 방학 때부터 '실력보다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억울한 생각을 버리고, 공부방법의 문제점을 직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점은 규칙적인 문제 풀이양식의 부족과 스스로 하는 개념정리의 부재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문제수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풀었습니다. 단순하게 하루에 정해진 목표량을 채워나가기 보나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부담감도 줄었습니다. 다음으로, 개념 전체를 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개념이 머릿속에 쑥 정리되어 있으니 응용력과 문제풀이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이 두 방법을 실천한 이후 실수도 줄어들고 성적도 향상되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괴롭기는 했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차분하고 끈기 있게 공부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생물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건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건데...'라며 수업 중간중간에 더 깊은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대학교에서 생명과학 공부를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학년 때부터 과학이 좋고 농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농업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생물 수업을 듣기 시작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농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명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식물의 굴광성을 배우면서 식물의 감각기관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식물은 알고 있다(대니얼 샤모비츠)'라는 책을 읽고 식물이 다른 생물과 다르게 진화해 온 과정, 그리고 감각기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식물 감각기관의 진화를 읽다보니 진화론을 이해하게 되고, 진화론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작은 호기심을 책으로 해결하면서 새로운 관심 주제가 생겼고, 더 큰 배움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생물 공부가 적성에 맞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 2015 식물생산과학부 -

저는 항상 어떤 일이든 자신이 즐거워야 그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공부도 즐겁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과서로 배운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지적호기심을 충족하면서 공부를 즐겁게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막전위에 대해 배우면 막전위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외국 학생들은 어떻게 막전위를 공부하는지 궁금해서 외국의 무료 인터넷 강의사이트인 'Khan Academy'에서 강의를 들으며 영어로 막전위에 대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용어를 배울 때마다 영어사전을 찾아보며 과학과 영어를 함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사교육 없이 혼자서 과학 공부를 했던 저는 학교에서 운영한 방과후 과학논술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던 유전자 발현 관련 문제를 보고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제시문을 꼼꼼히 읽으며 용어를 익히고 유전자 발현의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작성한 후에는 선생님의 첨삭을 받으며 고쳐 나갔고 새로 배운 내용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생물2 인터넷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리하라의 몸 이야기'를 읽으며 배경지식을 쌓고 지적호기심을 채워 나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르는 부분이 해결되어 나가는 것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항상 스스로에게 "이걸 왜 배우지? 어떻게 활용하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새로 배운 내용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원리를 활용하는지 궁금해져서 TED에서 관련된 강연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특히 강연에서 알게된 '아쿠아포린'이라는 막단백질에 흥미가 생겨 단백질에 관해 찾아보다가 '하리하라의 몸 이야기'에서 봤던 프리온 단백질 변형이 생각이 나서 '생각하는 생물학 강의'를 읽으며 단백질 변형에 대해 탐구했고 대학교에서 이 부분을 더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시험 점수를 위한 공부가 아닌 알아가는 즐거움을 위한 공부를 하였고 이는 앞으로도 제 학습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2015 간호학과 -

2번 문항.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1500자 이내).

국제수업교류 동아리 IVECA를 통해 문화는 서로 낯선 이들을 잇는 연결고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외국 친구들과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활동은 타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넘치던 제게 언제나 흥미진진했습니다. 미국 친구들에게 '춘향전'을 소개하면서 '암행어사', '열녀' 등의 우리 문화만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등장인물의 특징을 살린 그림과 함께 판소리와 마당극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문화를 낯선 이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파파야 누기니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웠던 전통 의상과 춤 등 그들의 이국적인 문화에 신선한 흥미도 느꼈습니다. 전통음식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Aigir'라는 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닭고기 안에 여러 채소를 넣고 묶어 찌는 모습이 삼계탕과 비슷하여 요리법을 소개하고 보양식의 개념을 공유하며 그들과 한층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곱씹히 들여다보고 함께 나누는 활동은 다채로운 문화의 가치를 일깨워주었고 인류학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더십 워크숍은 문화마케터의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4명이 한 조가 되어 부안에서 외지인에게는 낯설었던 그 지역의 '개양할미 신화'를 탐구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책, 영상 등을 통해 어로신앙, 심청설화와의 연관성을 조사하면서 마고할미설화로부터 파생된 한국 신화의 보편적 특징을 배웠고 우리 조는 서로의 개성과 의견을 조율하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신화를 재미있게 소개하는 역할극을 준비하였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의 줄거리에 상상력을 덧붙여 개양할미 딸이 신화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직접 연기했습니다. 수성당 등 신화의 실제 배경이 되는 장소에서 지역의 특징을 살려 촬영하는 과정은 다시 한 번 제 진로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누구도 하지 않았던 참신한 장면으로 살아날 때, 작품이 주는 특별함과 뿌듯함은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창의적 문화마케터가 되겠다는 다짐을 복돋아주었습니다.

독서 토론 동아리 '논객'은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강한 의견 주장으로 타인을 설득하는 데 익숙했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면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생각이 오가는 활발한 논객 활동을 통해 좁은 사고의 틀을 깨뜨리고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수들의 '팔꿈치 사회'를 읽고 '학교에서 경쟁은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열린 토론을 통해 일본의 유토리 정책, 핀란드 차별 교육 정책 등을 논하며 경쟁을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경쟁은 사회구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느껴 오연호의 '우리로 행복할 수 있을까?'를 읽고 우리 사회에 맞는 참교육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며 차이와 소통하는 열린 마음을 키웠습니다.

- 2017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

1,2학년 때 교내 문학기행에 참여하였는데, 김유정 문학촌 프로그램이 특히 인상깊습니다. 글을 짓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는데, 기행을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 작가의 소설을 찾아 읽으면서 비극에 가까운 현실을 거짓없이 응시하면서도 활력 넘치는 언어를 사용한 의도에 감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뚤어진 집에서는 위태로움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후 작가에 대한 논문과 평론, 수필을 읽고 사전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의 글과 직접 쓴 편지글 등을 통해 뼈와 살을 지닌 존재로 인간 김유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사한 자료들과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실레길을 걸으며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수필 '오월의 산골짜기'에서 작가가 애정을 듬뿍 드러낸 길을 직접 걸으니 작가와 동행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가가 살았던 시대, 작가의 고향, 작가의 친구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여 작품을 감상해 본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

다. 2년간 인문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편의 인문, 사회과학 도서를 탐독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철학자들과 그들의 사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사회·문화 수업시간에 배운 복지 사회와 관련된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밀의 '질적 공리주의'를 비교하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언급된 공리주의도 함께 설명하는 발표를 하고, 공리주의를 주제로 사회자로서 모둠 토론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2년 동안 이 주제에 대해 알아보며 공리주의에서 우선시하는 사회의 효용성이 다수결의 원칙, 자본주의 논리 등 일상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리주의의 한계를 따져보며 현대사회는 공리주의에서 외면 당할 수 있는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 고전 강독반이 개설되었는데 주제는 밀의 '자유론'이었습니다. 저는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임이 좋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임이 좋다."는 밀의 말을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수강신청을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자유론' 원서를 가져오셨는데,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서를 번역본과 비교하던 중 번역상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각 챕터를 정독하고 요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유주의를 거듭하며 책을 완독한 것도 기뻐지만, 저의 노력으로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된 일에도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번역에 큰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3학년 때 개인별 소논문문을 작성하면서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와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의 원서와 번역본을 각각 읽었습니다. 작품들을 깊이 있게 이해함은 물론 두 언어의 표현법 차이를 알아 가며 언어적 감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휘와 표현법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 보며 번역의 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2016 인문대학 인문계열 -

고1,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며 겪게 된 고등학교 생활은 낯설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의 문화는 다르게 느껴졌고, 학교의 간헐 틈과 청소년의 주체성 상실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2학년이 되던 해 '내셔널트러스트(NT)'동아리를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학생 신분이지만 시민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꾸준히 회비를 모아 보내고, 자연환경을 살리고 노숙인을 돕는 봉사활동에 진심을 다해 참여했습니다. 매화마을봉사에서는 친환경농법 전환에 대해 농민분들이 겪은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들으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를 선행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교내 축제 '○○제'에서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에 기여하고자, 친구들과 다양한 실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NT본사에 방문하여 사무국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언을 얻고 팔빙수 판매를 통해 기부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천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며 쏟았던 정성, 그 과정 속에서 사회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보람이 컸습니다.

고2 때 참여한 '인문사회캠프'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서울이란 공간을 지리·역사·문화 등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모둠별 미션을 수행하며 친구들과 웃음이 가득한 추억을 만들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 '서울 속 외국인 마을'이란 주제를 접하며 다문화사회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이 가장 뜻깊었습니다. 이상적으로 조화와 공존을 논하기에는 넘기 힘든 현실적 장벽들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외국인 또한 한국의 사회적 소수자임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4명이 한 팀이 되어 활동한 시간 또한 많은 배움을 주었습니다. 시민발안대 시간에는 조력자 역할을, 퀴즈나 글쓰기 시간에는 리더 역할을 번갈아 하였고, 도심 지리답사에서는 모둠원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주며 최우수 모둠상을 수상했습니다. '협동'이란 단어 속에는 소통과 화합이라는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했기에 모듬상 수상은 더욱 뜻 깊게 다가왔습니다.

뜻이 맞는 친구들과 2년에 걸쳐 '진로독서 동아리 활동'을 한 것은 내적 성장을 가져다 준은 물론 우정을 다져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탐구하는 동아리 '인사과'를 결성하는 과정부터 직접 서점에 들러 책을 고르는 것, 무엇 하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열면 논의 끝에 책을 결정해서 수차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토론하면서도 일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개인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 피상적인 의견들이 주를 이뤘는데, 선생님의 조언을 통해 특정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직관을 얻었습니다. 가령 소설 25시를 다룰 때, 유럽에 팽배해 있던 전체주의적 폭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타락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회구조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 접근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쌓아가다 보니, 사물과 현상을 넓은 관점에서 다각도로 바라보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 2015 지리학과 -

교내 과학탐구대회에 '수질검사기준을 활용한 우리학교 식수질검사'를 주제로 참가했습니다. 정수기 앞에 줄 서 있는 친구들을 보며, 정수기 물의 안전성을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실험을 시료만 달리 진행하는 것이라 쉬울 줄 알았지만, 꼼꼼히 실험연구를 조사했음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염화이온 적정 실험'에서는 적정 횟수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대장균군 수 측정 실험'에서는 멸균 중에 기포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 없어서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험재현은 단순 반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이 정교화되고 보완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롭게 알아낸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함으로써 뒷사람의 혼란이 줄어들고 원실험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험재현이 검증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식과 실험도구 사용법을 익히는데 의의를 두었던 교과서의 실험들에서도 오차 발생 이유와 개선할 점을 생각해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과 박수를 받고 싶어, 배우지 않았지만 뽀짝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드럼 연주자로 밴드부인 ○○○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합격하고 보니 초보자는 저 뿐이라 연주를 제게 맞춰야 했던 동기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짐이 되기 싫어하는 저는 미안한 마음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점차 실력이 늘어 노래에서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고, 합주 녹음 파일에 집중하는 저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드럼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거나 쉬운 곡만 하려던 수동적인 태도에서, 공연을 기획해 성공적으로 끝낼 정도로 능동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주목 받고 싶다.'는 첫 마음이 '우리의 음악을 나누고 싶다.'로 바뀌자 동기들의 잔소리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는 배려로 들렸습니다. 이처럼 한 분야에 애정을 가지면서 저를 향한 비난이라 할지라도 저를 보완하는 자양분으로 받아들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정을 품은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지지도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생명과학 고전임기반에서는 '종의 기원'과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토론을 했습니다. 두 달에 걸쳐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저만의 의문점과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들이 토론하는 것을 들으며 저와 전혀 다른 부분에 주목하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때로 친구들이 제가 몰랐던 예시를 들며 의견을 뒷받침하거나, 저는 알아채지 못한 의미를 언급할 때면 새로운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을까 고민하면서 의견 교환이 갖는 지식 확장의 힘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읽었던 것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을까 반성하면서 늘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라고 질문하는 습관이 생겼고, 남들의 의견을 구하며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더 유연한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 생각을 다듬는 법을 배우면서, 남들의 조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것으로 승화할 수 있었습니다.

- 2017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

이과를 지원 후 처음 듣게 된 생명과학 수업은 생물과 화학을 긴밀하게 융합하여 심화된 내용을 배울 줄 알았던 제 예상과는 조금 달라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의학관련 독서동아리 '미생'을 만들어 생명과학 수업에서 배운 단세포 생물부터 진화를 거친 복잡한 다세포 생물의 생명 현상까지, 나아가 진화이론에 대해 좀 더 깊게 탐구해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는 특히 '다윈 지능'과 '아버지들의 아버지'를 읽고 친구들과 했던 토론이 기억에 납니다. 오늘날 진화론이 정설로서 확립되었지만, 아직도 '성 선택'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나 진화의 중요한 연결고리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배웠고 생명과학도로서 연구해야 할 영역이 무궁무진함을 알고 실感を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한 심화과학반을 통해 저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꾸준히 훈련하고 다양한 실험 경험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심화과학반 활동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감자의 카탈레이스 효소의 최적반응조건을 구해보는 실험을 해 본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간단한 실험이었지만 생소하게도 오로지 실험의 재료만 주어지고 어떠한 실험내용과 목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조는 산과 염기라는 기본적인 재료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온도라는 변인을 통제해보면서 실험과정을 설계했고 결국 성공적으로 실험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험대상과 조작변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해나가는 과정에 대한 자신이 생겼습니다. 수의학자로 진로를 확정한 이후에도 심화과학반을 통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견학할 기회를 얻어, 실제 연구가 진행 중인 유전자 조작 개구리를 고배울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과정과 실험용 쥐를 행동관찰용 영상기록로 관찰하는 과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의 빈틈없는 행동을 보고 생물실험에서는 아주 사소한 요인들이라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영어가 좋아서 들어가게 된 영자신문 동아리는 생물학과 수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는 조금 부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동물에 대해 공부하고 친구들에게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1학년 때는 특이한 반려동물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 우선 동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노력했습니다. 2학년 때에는 제주도 수학여행에서 채찍을 맞는 말의 모습을 본 후 동물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느껴 다소 무거운 주제로 느껴질 수도 있는 '동물 권리'에 대해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저지르는 동물권 침해 사례를 지적하고 학생들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최원철 박사의 "3D 해부테이블"에 대한 TED 강연을 듣고, 사람의 해부뿐만 아니라 동물의 해부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여 그동안 의학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졌던 연구 동물의 희생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2017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

2학년 때 전공 소개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를 막는 방법인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창의체험 소논문 작성시간에 논문주제를 'CCS 기술의 정의, 과정, 방법'으로 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여러 논문을 찾았습니다. CCS기술이 획기적이지만 에너지와 비용이 많이 들고 지층 사이의 공극에 저장해 둔 이산화탄소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대기 중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연료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수업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실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직접 실험해보고자 자율 동아리를 만들고 실험 과정을 보고 싶은 후배들을 위해 사진과 동영상 찍어 어플을 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시간이 맞지 않고, 실험 방법에 대한 의견이 달라 순조롭게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모여 친구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경청하는 태도가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를 통해 얻어낸 결과는 서로의 역할분담으로 이어졌고 성격이 꼼꼼한 저는 준비물 챙기기와 실험실 사용 허락받기를 맡았습니다. 역할분담은 실험을 순조롭게 이뤄 낼 수 있었고 서로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 양보를 하다 보니 실험 일정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실험을 진행할 때 필요한 이론들을 자세히 배우고자 선생님의 수업을 더욱 집중하여 들었고 이런 점은 공부 습관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책임감과 조원들 간의 협동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회장이라면 목소리가 크고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을 하나로 만들고 포용하는 것에 자신이 있었기에 색다른 회장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회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회장이 되고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학기 초에는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질문하는 등 학업에 열중한 반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중간고사가 끝난 후 점점 반 분위기가 흐트러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회의 시간을 이용하여 반 분위기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같이 생각해볼까 하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할 때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자리에서 이동 할 만들 수 있습니다. 평소 저는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만 하고 제 의견을 자신감 있게 조용히 건기' 등이 채택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기 초의 분위기를 다시 제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과감히 추진한 저의 행동이 반 친구들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남의 의견을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여 타인을 설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2016 지구환경과학부 -

고등학교 수학을 즐겁게 공부하며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대학 수준의 수학 내용들도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선생님과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 대학 수학 중 '정수론'을 공부하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보다 깊은 사고를 요구한 것과 이것을 혼자 공부하는 것 보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다양한 풀이를 공유할 수 있었던 것들이 즐거웠습니다. 특히 복잡해 보이던 오일러정리를 해석하며 함께 증명과정을 공부한 것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2학년 때는 수학동아리에서 친구들과 같이 오일러정리가 활용된 'RSA암호'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암호화와 복호화를 하는 키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가장 인상 깊어서 그것의 증명과정을 공부하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친구들과 만들었습니다. 수학적으로 체계화된 암호를 공부하며 수학이 우리 실생활의 많은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수학적인 사고가 많이 필요한 물리를 공부할 때에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던 물리 I 보다 더 자세한 수식으로 공부하는 물리 II를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학교에서 물리 II수업을 신청하였지만 폐강돼서 물리 선생님께서 과학 거점학교를 추천해 주셨고 다행히 선발되어 화요일마다 물리 II수업을 들었습니다. 배우고 싶어 모인 친구들 덕분에 학교수업보다 심화된 내용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기장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접근하던 것들을 식으로 정리하며 물리량과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교류회로를 배우며 회로의 개정 전 교육과정이었던 부분도 궁금해 공부했는데 그 중 '키르히호프 법칙'을 이용하여 복잡한 합성저항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것에 대해 선생님과 토론하며 이해했고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 가지 회로에 대해 공부하며 많은 흥미를 느꼈던 저는 대학교에 가서는 더 발전된 '회로이론'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기술경영인의 꿈을 꾸는 저에게 이런 수학, 과학적 능력을 위한 학습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는 문법적인 요소가 강해 소통을 위한 영어와는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기사를 쓰며 실용적인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학교의 영자신문 활동을 했습니다. 자습실에서의 태도, 선생님께 지켜야 할 예의 등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친숙한 내용들을 기사로 쓰며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한 영어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작성한 기사를 친구들과 함께 편집을 하며 문법적인 완성도가 있는 영어뿐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신문이 발행되자 무슨 영어 신문이냐면서 어렵고 재미도 없다며 질책을 하던 친구들도 저의 기사를 보고는 쉽게 써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해줘서 더욱 뿌듯했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며 배운 영어는 회화에 대한 자신감을 만들어 주었고 영어의 주된 목적은 소통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 2016 전기정보공학부 -

평소에 지나다니던 동네 화단에 화양목과 철쭉이 많은 것을 보고 그 이유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교내 ○○○보고서대회에서 '우리 주변의 조경식물이 비숙한 이유'라는 주제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조경에 많이 쓰이는 식물은 병충해 저항성이 강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아파트의 조경식물을 조사하였는데, 모르는 식물은 인터넷 식물사전으로 동정하였습니다. 학교와 아파트에 공통으로 있는 식물들을 선택한 후, 도서관의 조경식물 사전을 이용하여 '생태'와 '관리 및 번식'에 대한 각 식물들의 특성-내한성, 병충해 저항성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특성마다 그래프로 만들어 분석했습니다. 많이 쓰이는 조경식물들은 추위를 잘 견디고, 생장속도가 느리고, 옮겨 심기가 쉽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과 달리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은 강과 약이 반반이었습니다. 이 탐구보고서를 쓰면서 가설과 탐구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 분류, 분석하는 탐구과정을 습득했습니다. 또 탐구수행과 결과분석 외에도 탐구 동기, 이론적 배경, 결론을 논리적으로 써보면서 연구의 목적과 주제가 더 탄탄해 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조경식물에 대한 호기심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조경과 식물에 대해 학교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경을 하나의 실용적인 예술작품으로 보는 조경 비평집도 읽었고, 조경이 형성되는 과정, 우리나라의 식물과 토양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맥문동, 배롱나무 같은 식물 하나하나의 특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즐거움도 얻었습니다. 또 길을 걸어가갈 때, 눈앞에 식물의 이름을 생각하게 되면서 식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평소 일상의 사소한 호기심을 연구주제로 정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기심'을 현실의 필요와 연결시켰습니다. 농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텃밭도 가꾸어보고 베란다에서 상추도 키워보면서 작물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토양을 써야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으로 결과를 얻으면 다음 해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종류에 따른 작물의생장'이라는 주제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다섯 개의 화분에 부엽토, 지렁토, 혼합토, 부엽토+지렁토, 부엽토+자렁토+혼합토를 넣고 고추와 상추를 심었습니다. 실험 결과, 작물은 다 공질이어서 배수성, 보수성이 좋은 부엽토에서 가장 잘 자랐고 부엽토+지렁토+혼합토 화분에서 자란 작물의 생장이 가장 더 컸습니다. 따라서 작물의 생장에는 흙의 화학적 성질뿐만 아니라 물리적 성질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과학자로서 끈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험 계획을 세우고 수정하는 것에도 한 달이 걸렸고, 6개월 동안 작물을 재배하면서 물을 꼬박꼬박 주어야 했고, 진딧물이 생겼을 때 농약을 치기도 했습니다. 식물 분야의 과학자는 장기간의 연구를 하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 경험을 통해서 끈기있게 관찰하는 실험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 2015 식물생산과학부 -

제가 좋아하는 영어로 신문을 만든다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영어 NIE동아리에 입부했습니다. 교내 영자신문 발간을 위해 에디터를 맡았을 때 처음에는 문법도 맞지 않고 내용 구성도 어색한 부원들의 초고를 보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틀린 문법을 교정해 주고, 고급 어휘책을 찾아보며 더 격식을 차린 어휘로 바꿔주고, BBC뉴스 기사를 참고하며 부원들의 기사 구성을 수정해 주다보면 새벽까지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저의 편집을 받아서 부원들이 열심히 수정한 기사들이 매끄럽고 알차게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며 시간을 투자한 것이 아깝지 않고 제는 기부를 한 것 같아 뿌듯하고 보람되었습니다. 또 기사의 완성도를 위해 많은 영자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스스로도 기사를 여러 번 써 보면서 미숙했던 저의 에세이 실력도 훨씬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디팅 활동을 통해 부원들 사이의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간호학과 관련이 있는 다른 의료, 보건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 ○○대학교의 과학캠프에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체험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응급구조학과에서의 심폐소생술 체험이었습니다. 실습실에 들어서자마자 지금부터 웃는 사람은 내보내겠다는 교수님의 경고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사람과 처치를 받은 사람의 영상을 봤습니다. 몇 분 만에 생사가 갈리는 것을 보며 잠깐의 머뭇거림이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하자 사람을 살리는 일의 무게가 갑자기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심폐소생술 체험을 할 때는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단 5분 동안이지만 손등의 핏줄이 터지고 온몸이 땀범벅이 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임했습니다. 국제구조를 꿈꾸는 저에게 응급구조학과에서의 활동은 생명을 살리는데 망설임 없이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켜준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소외된 약자들을 안타깝게 여겼고,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국제구호를 꿈꾸는 저는 국제기구에도 관심이 많아서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인 'کمپەیشن'에서 어린이와 후원자 간의 편지를 번역하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하며 어린이들과 후원자들의 유대관계를 이어주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지만 번역 봉사를 하며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후원을 받는 어린이들은 환경은 어렵지만 공부를 하며 보람을 느끼고 친구들과 노는 일을 기대하는, 동정의 대상이 아닌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아이라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따뜻함을 느끼고로서 결국은 서로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번역을 하는 내내 아이들이 친동생처럼 느껴졌고 이후 학급의 월드비전을 통한 아동 후원 총책임자를 맡으며 봉사와 후원의 참뜻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 2015 간호학과 -

3번 문항.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교내모의국회는 리더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현실정치를 풍자극의 형식으로 재밌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활동인 모의국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스무 명과 단기간에 연극을 완성해야했습니다. 저는 팀을 한 목소리로 묶고 주도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며 빠르게 일을 진행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섯 팀으로 나뉘 수월하게 진행되는 줄 알았던 제게 어려움을 털어놓는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기획팀의 한 친구가 자기 역할이 잘 맞지 않는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와 대화하며 그동안 바쁘게 팀을 나누고 일을 추진하느라 팀원들을 세세히 신경 쓰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팀원 한명 한명에게 먼저 다가가 필요한 점이나 고민은 없는지 물어보며 작은 문제도 해결해나갔습니다. 또 친구들의 장점을 빛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연출팀에서는 섬세한 친구가 극의 흐름을 조율하고, 감각적인 친구가 무대배치를 맡는 등 한 팀 내에서도 팀원들의 개성과 끼를 고려하여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모두가 빛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배려임을 배웠습니다.

이어 기획팀과 대본팀이 대본제작에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취지에 맞게 더 쉽고 재밌는 인물과 아이디어를 만들던 기획팀과 비정규직, 양극화 현상 등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던 대본팀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두 팀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면서 극의 방향을 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로의 의견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부족함을 깨닫고 두 팀 간의 회의를 마련했습니다. 대본팀의 탄탄한 자료와 줄거리를 귀 기울여 듣고 기획팀의 개그, 패러디, 유행어 등 특색 있는 아이디어들을 활발히 나누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둘이 함께 머무려져 더 풍성한 대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의국회로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고 소통이 함께 할 때 더 멋진 조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팀원들을 이해하고 챙기는 세심함을 가진 리더의 역할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2017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

고등학교 입학 첫날, 지금까지 만나 본 적이 없는 특별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조선족 아버지와 탈북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친구는 13살 때 중국을 떠나 홀로 한국에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3년 내내 같은 반에서 함께하며 가족이야기와 한국에서 어렵게 적응한 이야기를 들었고 친구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 사이의 입장 차이들을 이해하고 좁혀 갈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학교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 시간이 지난 후, 친구에게 힘이 되고 싶어 시작한 일들이 오히려 저를 성장하게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제게 새 세계를 열어주는 문이었고, 제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 하였던 모습을 반성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것을 두려워 하던 저를 격려해 주며 자신감을 갖도록 저를 믿어 주었습니다.

친구의 응원에 용기를 얻은 저는 2학년 2학기 학급반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과묵한 제가 반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스스로도 확신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소 조용하기로 소문난 학급 친구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저는 학급회의를 열어 의견을 유도하고 이를 수렴하여 함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노력이 모여 저희 반은 종합성적 1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 <뽕>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말랑말랑한 흙이 말랑말랑 발을 잡이준다.'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며 다독이는 부드러움을 알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급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3년간 함께한 친구들과의 시간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반장의 자리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저와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더 큰세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 2016 인문대학 인문계열 -

고2, 1년간 학급 모듬일기를 쓰면서 친구들의 솔직한 내면과 선생님의 진심어린 조언을 글로 만나는 경험은 색달랐습니다. 글 속에 담긴 친구들의 다양한 세계관을 접하며 38명 각자가 소우주를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저 역시 정성을 들여 단편소설을 적거나 나고 자란 제주도의 43항쟁, 심화반의 교육적 차별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한 글을 쓰며 생각을 공유하였습니다. 손때 묻은 6권의 모듬일기 속 일상의 추억을 모두의 기록으로 남기고 자문집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문집위원장을 권하셨지만 저는 끝내 말지 않았습니다. 리더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다른 친구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의 행동이 진정한 배려인지 물으셨고, 그 순간 왜 제게 리더를 권하셨는지 깊이 고민하지 못한 제 자신의 부족함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위원장을 도와 소통하고 헌신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아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팀장을 자청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문집작업이 있기에 더욱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고3을 앞둔 겨울 방학이었지만 두 달여 간 8명의 문집 위원들이 수시로 모여 참신한 기획을 하고자 머리를 맞췄고, 1교시 5반학 개론, 6교시 열정학 등 재밌는 구성과 내용이 나왔습니다. 글을 선별하고, 타자를 치고, 사진을 고르고, 참신한 표제를 뽑고, 꼼꼼하게 편집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제가 맡은 부분을 다하고 나면 친구들을 도우러 나섰습니다.

의견의 불일치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친구들의 개인 사정으로 일이 더디걸 때도 있었지만 불만을 토로하기 보다는 서로 이해자며 다독이고 의기투합해 전진하였습니다. 종업식을 앞두고 284쪽에 달하는 문집 '응답하라2013'을 받아든 친구들의 환한 미소에 그 동안의 노고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1년의 추억을 책 한 권에 담아냈다는 뿌듯함과 추운 겨울 함께 고생한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이 컸고, 무엇보다 소통과 배려, 협력에 대해 직접 부대끼며 배운 점이 뜻 깊었습니다.

- 2015 지리학과 -

토요영어교실에서 3년 동안 교육봉사 활동을 하며 한 학생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 지를 깨달았습니다.

장난기 많은 초등학교 1학년 ○○이는 늘 무료 버스를 타야 한다며 수업이 끝나기 10분 전에 나갔는데, 저는 그런 버스를 본 적이 없어서

○○이가 일찍 가려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이가 늦게 가게 된 날, 데려다 준 정류장에서 무료 버스 표지판을 보게 되었고, ○○이가 집으로 가는 일반 버스를 모르고 지갑도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가 장난감 책상에서 수업을 듣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혼을 내야 할까 고민하던 중 함께 봉사하는 친구가 “10분만 앉고 오자.”라며 이를 허락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약속을 안 지키길 거라 예상했는데, 10분이 지나고 ○○이는 제자리로 오자는 말에 따랐고 수업도 잘 들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경험하며 자문해봤습니다. ‘나는 왜 ○○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저의 선입견이 문제였습니다. 무료 버스가 있는지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 장난감 의자에 앉고 싶은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 다. ○○이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제 판단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편견을 줄이기 위해 충분히 자신을 돌아봐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고, 밴드부에서 선배와 후배일 때의 상반된 시각을 경험하면서 고정관념을 없애려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아직도 저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았고, 자신의 위치와 경험에 의해 형성된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편견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자신의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 관점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며 공감해주는 자세로 모든 방면에서 저의 행동과 사고에 대해 성찰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7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

교내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인 ‘스터디엔젤’을 하며 저는 배려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1년 아래인 후배 한 명을 맡아 일주일에 한 번씩 수학과목을 지도 해주는 일이었는데, 이런 개념을 어떻게 이해시켜주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연구노트까지 작성하여 멘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초반엔 저 혼자만 열심히 하는 기분이 들어 힘이 들기도 하고, 멘티와 조금 서먹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멘티의 관심분야이던 연극공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보니 멘티는 늘어난 공부량 때문에 더 이상 공부와 연극을 병행할 수 없었고 연극이란 꿈을 접고 공부를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진학 정보도 부족하고 공부법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습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부터 수학문제 풀이과정을 중학교 교과서 개념까지 찾아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등 정성껏 도왔고, 멘티도 저를 신뢰하며 학업에 집중해 나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꾸준한 대화를 통해 인간적인 공감을 나누는 것이 나눔의 시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기견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생명은 전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직접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에는 주로 배변판 치우기, 물통 갈아주기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사소한 일부터 꾸준히 하다 보니 나중엔 진료실까지 들어가서 아픈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표현인데 오히려 시끄럽고 사납다는 이유로 방치되거나 버려진 동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인공포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던 아이들에 대해 수의사 선생님들도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인간이었다면 버려지지 않았을 이유로 버림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미약한 동물행동 치료법을 연구하여 이 아이들의 고통을 보듬어줄 수 있는 수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2017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

1학년 때 학교 시험 전 학급의 부장들과 함께 과목을 지정해서 예상문제를 만들어 반 친구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저는 과학부장으로서 화학1과 공통과학 문제를 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반 친구들에게 문제를 나눠주고 문제 풀이를 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제 설명을 열심히 듣고 문제풀이에 열중하는 친구들을 보며 더 꼼꼼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커졌습니다. 문제를 내면서 간과했던 부분을 다시 볼 수 있었고 내용 정리도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업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친구들 앞에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그런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는 것을 나눔으로써 나 자신도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 유자원에서 꾸준히 봉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시간에 보조해 드리기, 산책 시켜드리기, 심부름 해드리기 등 처음에는 수동적인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께서 밖을 나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 역할이 아니어서 외면했는데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당황하여 모시고 나갔을 때 빗뚱을 보고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배려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려는 마음만 있어도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외면하려 했던 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그 후 저는 요양원 방문 시 어르신들이 하시는 체조도 같이 하고 말동무가 되어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친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니 함께 하는 활동들이 즐거웠고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유자원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녀분들이 오시면 서로 애뜻해 하는 모습을 보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봉사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작은 실천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 2016 지구환경과학부 -

고등학교 재학동안 3명이 한 조가 되어 주변의 독거노인분의 집에 찾아가 우유를 전달해 드리는 ‘노인행복 건강우유 프로젝트’에 참가했습니다. 할머니는 늑둑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불조차 켜지 않고 살고 계셨고 처음에 갔을 때 표정은 어둡고 굳어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할머니는 가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었으나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자라고 생각하며 격주마다 방문하였습니다. 비가 온 날에는 집이 눅눅해져서 곰팡이 냄새가 났고 문을 열자마자 악취가 물려왔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환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었기에 아무렇지 않아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환경에서 사는 할머니의 건강이 더 걱정되어 환기를 해드렸고 친구들과 함께 방 청소도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 비가 오는 날이면 할머니 생각이 더 나게 되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 번은 냉장고를 열어 보았더니 드렸던 우유가 유통기한이 지난 채 썩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 드실 줄 알았지만 혼자 계셔서 그것을 다 드시기엔 버거우셨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 못하셨던 할머니를 생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작은 우유를 여러 개 사서 드렸습니다. 계속 방문하며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밝아 지셨고 저희가 오는 날짜를 물어보시며 달력에 표시해주셨습니다. 또, 전화를 드리면 처음에는 귀가 어두우셔서 못 알아 들으셨지만 나중에는 할머니가 먼저 아시고는 좋아해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큰 생각 없이 시작한 봉사였는데 저의 작은 시간을 나누는 것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기다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할머니만 기쁘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저도 또한 행복했습니다. 또, 가족과 단절된 독거노인을 보며 우리 주위에는 소외된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을 돕는 것은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기에 결코 어렵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2016 전기정보공학부 -

2학년 초, 청소구역을 1인 1구역의 방식으로 정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약 2주 동안 청소를 하면서 보니, 어떤 아이들은 청소구역이 작아서 높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일이 너무 많아서 청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이런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정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 선생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청소 구역의 재편성을 건의했습니다. 편한 구역을 맡았던 일부 아이들이 반발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결국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아이들이 불만 없이 청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제 생각을 말하고 실천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 동아리 발표대회를 준비로 과학토론부에서 골드버그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골드버그장치는 처음에만 건드려 주면 연속적으로 움직임이 계속되는 장치입니다. 초반에는 몇몇 아이들이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골드버그장치 만들기는 도미노처럼 여러 사람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때 저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조원 각자에게 동기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원들의 '성실함'만으로 협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1개씩 구조물을 선택하게 한다면, 선택한 것을 만들기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재미있고 유명한 골드버그장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참여하여 토의할 수 있도록 팀을 2개로 나눴습니다. 설계도 그리기, 재료적기, 재료 구해오기 등의 역할 분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보고 싶은 구조물을 각자 1개씩 제안해 보라고 하자 이내 활기가 생겼습니다. 그 결과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골드버그장치를 완성하였습니다. 한 두 명이 했다면 절대 완성하지 못했을 장치를 보면서 부원들에게 고마움도 느꼈습니다.

- 2015 식물생산과학부 -

과학탐구토론대회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참가한 대회였습니다. 첫 대회라는 부담감과 곧 있을 중간고사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책과 인터넷을 찾아가며 노력한 끝에 다행히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본선을 준비할 때 효율성을 위해 발표, 반론, 그리고 평론 역할을 나눠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선 며칠 전에 갑자기 팀원 중 반론을 맡은 친구가 반론이 너무 부담스럽다며 역할을 바꾸고 싶다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미 발표준비를 한창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본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역할을 바꾸자는 친구의 부탁에 조금은 염려했던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예선 준비 때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탐구주제를 결정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것을 떠올리고, '부담감이 얼마나 컸으면 결국 참다가 말한 거겠어.'라는 생각을 하니 친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는 자기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이번에는 발표와 반론준비를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친구가 발표연습을 할 때 저는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면서 우리 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 또한 반론을 해야 할 부분을 찾는 요령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자 하는 것보다 큰 시너지효과를 내게 되었고, 본선에서는 아직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2학년들 사이에서 동상을 받게 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팀을 이루어서 대회를 하는 것은 함께 협력하고 양보해서 성과를 이루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번 대회를 통해 저를 포함한 팀원들 모두가 깨달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한편 저는 반론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면서 비판력이 길러져 이후 글을 쓸 때나 토론을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며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나 자신을 돕는다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중학생 때까지는 발표도 제대로 못하다가 이 대회를 계기로 다양한 교내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2015 간호학과 -

4번 문항. 고등학교 재학 기간 (또는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1,500자, 한 권당 500자)

▶ '선정 이유'는 각 도서별로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자 이내로 작성

▶ '선정 이유'는 단순한 내용 요약이나 감상이 아니라, 읽게 된 계기, 책에 대한 평가, 자신에게 준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

: 책의 줄거리 X, 왜 이 책을 읽었는 지 선정 이유와 영향을 받은 부분이 중요.

1) 아트인문학 여행 (김태진 저)

문화마케터가 꿈인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책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무늬가 넓은 의미의 문화라면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것 역시 좁은 의미의 문화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화요소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문화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오랑주리 미술관의 건축이 모네의 수련연작을 더 빛내준다는 사실이 놀라웠는데, 구글 아트 프로젝트라는 온라인 가상 미술관 서비스를 통해 그를 확인하며 문화요소 간의 조화는 더 풍성한 기쁨을 선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 즉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두오모의 쿠폴라를 빛낸 브루넬레스키의 도전,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에서 재창조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공유하며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습니다. 진정한 문화마케터는 문화와 그 이면에 담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동반해야함을 이 책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2) 문명의 붕괴 (제레드 다이아몬드 저)

대영박물관에서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나친 삼림벌채까지 초래하며 거대한 석상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져 읽게 된 책입니다. 저는 문명의 붕괴의 원인을 단순히 환경파괴라고 좁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도미니카와 아이티 간의 차이를 분석하며 자연환경과 함께 사회, 경제적 요소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남동폴라네시아의 세 섬들의 연이은 붕괴를 망가레바 섬의 침식과 더불어 그 섬들 간의 교역, 상호의존성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한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리, 정치·경제적 요소, 역사까지 망라하는 넓은 시각이 필요함을 느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은 자연과 소통하며 발전하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독서는 복합적인 사고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총체적인 시각과 통찰력을 갖춘 인류학도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저)

미래사회는 인공지능의 세계가 될 것으로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합니다. 약인공지능의 한계를 넘어 인간을 대체할 강인공지능의 시대는 우리에게 위협이자 기회입니다.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접한 이 책은 농업, 과학혁명 등 인류사의 대표적 개념을 통해 시대를 구분하고 인간의 역사를 정리하여 인간의 과거에서 미래의 모습을 찾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그들의 탐구욕망이 '과학혁명'이라는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부분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갈등과 난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등은 그 이면의 어두운 부분이라는 점 또한 깊이 새겼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이 인류학의 큰 의미이자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호기심과 탐구정신을 가지고 사유하는 미래 인류학도에게 많은 조언을 해준 책이었습니다.

- 2017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

① 소수의견 (손아람 저)

저는 2학년 때 학습동아리 '○○○'에서 팀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교육 문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학습동아리를 조직하여 인권 교육에 대해 연구를 하고 소논문을 작성하였는데, 이후 인권에 많은 관심이 생겼고 이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100원이 걸린 진실을 향한 법정공방, 공평과 정의라는 법의 허울에 구속된 힘 없는 남자를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실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을 만큼 꼭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중요한 것임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맡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고군분투하는 변호사들의 모습에서 끈기와 인내를 배웠습니다. 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면서도 타인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책을 읽고 용산참사가 떠올라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문제에 둔감했던 모습을 반성하였으며, 한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접하고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알아갔습니다.

② 필로미나의 기적 (마틴 식스미스 저/ 원은주, 이지영 역)

제가 활동한 학습동아리 '○○'의 논술 수업에서 소수자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후 소수자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이 책을 읽었습니다. 미혼모나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이야기를 읽은 후 그들을 비난하거나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윤리 아래 미혼모와 동성애자를 죄악으로 치부하고 방치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고 진정한 포용과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 보았습니다. 특히 새터민 가정의 친구들과 함께 대안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는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탈북자를 비롯한 소수자들을 더욱 힘겹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을 애정 어린 손길로 보듬어 주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かを 생각하며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자 자료를 조사해 소논문을 작성하였으며 제가 깨달은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책을 소개하였습니다.

③ 반 고흐, 영혼의 편지 (빈센트 반 고흐 저 / 신성림 역)

2학년 미술 시간에 화가의 시선으로 평면 작품을 제작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미술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의 작가 빈센트 반 고흐를 선택했고, 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그가 직접 쓴 편지들을 담은 이 책을 선택하였습니다.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험겨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작품들을 그린 그의 강인함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림을 가득 채운 별 빛 한줄기 한줄기 마다 예술을 향한 고흐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제대로 꾸려 나가지 못한 채 동생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였던 그가 조금 더 진취적으로 삶을 개척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클림트, 모네 등 친구들이 선택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도 듣고 직접 작품도 제작하면서 한 학기 동안 예술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서 풍부한 감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 2016 인문대학 인문계열 -

① 당신들의 대한민국 1,2 (박노자 저)

이 책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발적인 제목에 이끌려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지만 읽는 내내 무거운 마음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책이 좌파적 시각에서 한국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했다는 '정치성' 때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라는 화두를 던져 주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고1 초입의 철없던 저는, 권위주의, 사대주의, 패거리주의, 군대문화 같은 한국사회의 폭압적 부조리를 조목조목 짚는 책의 내용에 감탄했지만, 한편으로는 책의 내용에 경도된 나머지 '지적 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은 확신할 수 있었는데, 더 많은 친애와 우정, 존중,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탈피를 외치는 저자의 삶의 태도는 분명 제게 훌륭한 귀감이 되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확신할 수 없지만, 이 책은 분명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상을 뚜렷이 정립하게 해준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② 집으로 가는 길 (이스마엘 베아 저/송은주 역)

세계지리 시간에 아프리카의 분쟁과 불평등에 대해 배우며 관심을 갖게 된 책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겪어보지 못한, 현대 물질적 풍요의 수혜를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프리카 내전의 실태를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혼란 속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 자체로 색다른 느낌과 많은 고민을 던져 주었습니다. 저자 이스마엘이 시에라리온 내전 속에서 겪는 상실의 과정을 마주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고, 또한 자원, 국가 간 역학 관계 같은 분쟁을 둘러싼 여러 요소들이 그저 '현실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책은 과연 세상의 어떤 일들까지 내 삶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보게 해주었고,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 역시 수많은 갈등과 분쟁 상황에 내몰린 이들이 있음을 떠올리며,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돼주었습니다. 타인의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③ 리생킹 서울 (김경민, 박재민 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리 답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런 제게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입니다. 도시의 발전 방향이라는 문제는, 사람들의 삶이 '직접 영위되는' 공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중요성을 피부로 느껴오곤 했습니다. 잦은 철거, 더욱 많아지는 고층빌딩과 고급 시설들을 보면서 겉보기의 화려함과 더불어 더 많은 편리함을 잃어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획일성, 그리고 극으로 치닫는 자본의 논리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이 흥미롭게 다가왔던 이유는, 기존의 개발지상주의적 통념을 깨뜨리며 도시 공간에 녹아든 문화적 가치 등 소소한 미덕을 강조했다는 점과, 한편 무조건적인 반개발을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근대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건물들과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보존하는 개발을 통해 오히려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시선은, 바람직한 서울의 모습에 대해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던 제게 발상의 전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 2015 지리학과 -

1) 죽음을 원할 자유 (케이티 버틀러 저)

철학시간에 죽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생겨 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만이 정당일까?'라는 저자의 질문이 신선했습니다. 특히 자기 부모님의 죽음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풀어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사랑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책 전반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의료인의 경제적 욕심에 의한 것으로 보는 저자의 태도는 아쉬웠습니다. '생명의료윤리'나 '미래의 의사에게'를 읽고 의사가 연명치료를 계속하려 하는 것은 치료의 포기가 의사의 실패라고 여기는 인간적인 죄책감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최선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을 통해 삶과 죽음에 관한 자신의 주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삶의 소중함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첨가물 (아베 쓰카사 저)

저는 먹기 전에 재료 목록을 꼼꼼히 읽는 버릇이 있었고, 식품 첨가물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싶어 읽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식품첨가물에 반대하는 입장임에도 그 양면성을 모두 소개합니다. 이런 태도는 독자들이 첨가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배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품첨가물을 무조건 반대하던 생각을 재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저자의 입장에 공감했지만,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저자의 생각은 부족해보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식품첨가물 목록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귀찮아서 주어진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식품을 소비합니다. 따라서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산시키고, 기업이 관련 정보를 정직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해로운 수준의 첨가물과 기록 위반사항을 철저히 규제하는 정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 당신이 몰랐던 식품의 비밀 33가지 (최낙언 저)

뉴스는 근본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는 저자의 말이 저의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스가 객관적이라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며, 누군가에 의해 선별된 정보이자 선별자의 주관적 견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식품의 효과 또는 유해성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뉴스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뉴스는 지나치게 빨리 생성, 소비되지만 정보의 진위여부 판단이나 후속조치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이런 휘발적인 보도는 빠른 정보를 원하는 대중과 경쟁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잊은 언론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뉴스 소비자들은 비판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뉴스 생산자들은 언론이 갖는 영향력을 인식하여 책임의식과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부터 비판의식을 가지려 노력하고 이런 인식을 남들과 공유하면서, 어떻게 더 확산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2017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

1) Black Beauty (Anna Sewell 저)

"Black Beauty"는 제가 가장 처음 읽은 영어 원서이자, 자라면서 읽고 또 읽을 때마다 말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에 대해 끊임없이 애정을 느끼도록 만들어 준 작품입니다. 이 책을 읽은 직후 부모님을 졸라 겨우 보게 된 미국 대초원에서 뛰놀던 말들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사람들이 말이 느끼는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 편의에 따라 부리며 학대하는 모습에 화가 날 뿐이었지만, 다시 읽을수록 말이 느낀 바를 세심하게 서술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이지만 생각과 감정이 있기에 존중해주어야 하며, 말을 제일 잘 이해해주었던 소년 조와 말 블랙뷰티 사이의 유대감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도 동물의 정서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동물권리 보호와 동물복지 문제에 눈을 뜨게 하고, 말과 같은 대동물의 행동연구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2) Flowers for Algernon (Daniel Keyes 저)

꽤 오래 전에 발표된 책이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행복해지는가?'라는 질문은 저에게 매우 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주인공 찰리와 실험쥐 엘저는 모두 지능 실험에 참가한 뒤 평소보다 세 배 높은 지능을 획득하게 되지만 예상과 달리 이들은 더 많은 행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분명 찰리의 지능이 높아진 것은 과학기술의 혜택이지만, 이는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자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나중엔 높았던 지능을 잃어가는 과정에서도 내적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언제나 더 많은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생명을 다루는 과학자로서 과학기술의 발전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려서는 안 되며 과학기술이 하나하나의 생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분석하고 고려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는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3) 내가 보고 싶었던 세계 (석지영 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버드법대 종신교수가 되신 석지영 교수님의 책은 짧은 날에 정말 다양한 공부를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어렸을 땐 발레로 예술에 몸담았고 대학에서는 인문학을 전공했으며 최종적으로는 법이라는 학문에 종사하게 된 교수님의 삶을 보면서, 제 짧은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수의학도를 꿈꾸기 전에는 영어와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갈고닦았던 영어실력이 수의학적 지식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심리학 탐구는 동물행동학이 결국 소아심리학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책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던 분야는 정말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인문학적 소양과 심리학적 지식을 두루 쌓아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통섭형 수의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 2017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

① 세상을 바꾼 창조자들 (이종호, 박홍규 저)

여러 과학 이론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고, 세상을 보는 관점들에 대해 배우고 싶어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과학자는 베게너입니다. 베게너는 기상학자였는데 지질학자도 생각하지 못한 대륙이동설에 대해 주장했다는 것과 당시의 조롱과 비판에도 험난한 탐험을 통해 끝까지 증거를 찾으려 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의 의견에 대한 상대방의 비판이 두려워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베게너의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의 의견에 자신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자유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밀의 생각에 대해 알게 되면서 자유에 대한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하면 이 시대의 정신이 진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② 일기 예보를 믿을 수 있을까? (로베르 사두르니 저 / 정나원 역)

일기 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과서에서는 일기 예보의 세부 과정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관련 책을 읽어 호기심을 채워나갔습니다. 수치예보모델의 격자점 간격을 아무리 좁게 만들어도 격자점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기상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방정식의 값을 슈퍼컴퓨터도 정확한 값을 낼 수는 없다는 것에 기상학이 발전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일기 예보의 오류가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상태의 차이가 나중에는 큰 오류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상 예측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완벽히 예측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도전의식이 생겨 지구환경과학부에 진학해 기상예측에 필요한 지식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③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저)

이 책은 아버지께서 마음을 평화롭게 해준다면 사주신 책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연 나 자신답게 살아왔는지를 묻는다.’ 라는 문구를 보고 잠시 책을 덮고 진지하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난날들을 생각하니 ‘내가 과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온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 끝에 가치 있는 것은 현재의 행복이라고 답했습니다. 각각의 사건이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가치가 누적이 되면서 지금의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배움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현재 저는 행복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정 스님의 질문을 통해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예전보다 자신감을 많이 얻어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된 저의 변화된 모습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2016 지구환경과학부 -

① 반드시 알아야 할 50 위대한 수학 (토니 크릴리 저/ 김성훈 역)

수학적인 내용들의 예시와 이야기를 통해 흥미를 돋게 하면서도 논리적 명확함을 잃지 않는 이 책은 수학의 즐거움을 더욱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그중 ‘자연대수(e)’ 부분에서 오일러의 자연대수를 활용한 공식은 익숙한 기호들이 복잡한 식을 이루고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이 공식은 수업시간에 배운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공식들을 증명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어 더 흥미로웠습니다. 좌표평면위의 단위원에서 벡터의 내적과 회전변환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었던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오일러의 공식에서 지수법칙을 활용하면서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해 보여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책의 내용이 수업과도 연결되는 것을 보고 하나의 수학적 개념은 다양한 부분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은 중요하지 않다고 흔히 넘기는 수학적인 내용들도 다른 내용들과 연결되면 중요성이 더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차근차근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② 물리학 클래식 (이종필 저)

고등학교 물리교과서에는 물리학적 내용이 이론의 탄생의 역사와 함께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물리학적 이론의 발견과정들을 무시한 채 단지 고득점을 위해 이론과 법칙들을 외우기만 했었습니다. 이해하지 않고 외우기만 하니 단기간 동안은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헛갈리게 되고 이해도 잘 안 갔습니다. 그래왔던 저에게 이 책은 새로운 공부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책은 물리학적 이론의 탄생 배경과 탐구과정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읽고 해당된 이론들을 공부하니 이론의 기초가 되었던 학자들의 기초적인 발달들, 실험과정들과 함께 이론을 이해하게 되어 이론의 뿌리 깊은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론의 응용된 사고도 가능하게 되어 복잡한 것들도 기본적인 이론들을 통해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학습방법을 통해 이론과 법칙들을 무작정 외우며 공부했던 것들을 반성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론을 배울 때 그것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을 통한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③ 프레임 (최인철 저)

3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의 다양한 사고방식을 해석하는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사람의 고유한 사고방식을 ‘프레임’이라 정의합니다. 사람은 고유한 프레임을 가지며 사고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프레임의 관점에서 보면 저만의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었고 그랬던 제 자신이 매우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온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다르고 서로 다른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이후에는 서로 다른 생각을 만날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저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저의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하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 2016 전기정보공학부 -

① 굶주리는 세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장지글러 저/ 양영란 역)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에 이어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정치경제 문제, 신자유주의로 인한 기아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했습니다. 저자는 많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기구의 일원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굴하지 않고 시민사회와 농업인이 스스로 단결한 조합의 투쟁을 주장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기아의 원인이 일제강점기의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일과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식민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민지를 겪은 나라로서, 또 같은 인간으로서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강자의 악탈에 분노했습니다. 농업과학자로서 이런 현실을 바로 알고, 기아가 심각한 나라들에게 제 능력을 통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보탬 것입니다.

②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저/ 이윤기 역)

‘살아있는 가슴, 위대한 야성을 지닌 조르바’ 이 책은 자유라는 개념을 조르바라는 사내를 통해 형상화한 소설입니다. 저는 ‘배움’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학문으로 스스로를 수양하는 것을 동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조르바가 어리석고, 비현실적인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나’도 저처럼 생각했는지, 어느 날 조르바에게 “세상살이 좀 해봤다고 거물인척 하는데, 사실 당신이 경험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냅니다. “왜 사람의 기를 죽이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껏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부분을 읽는 순간 시야가 탁 트였습니다. 저는 친구가 공부를 안 하면 제가 답답했습니다. 공부에만 갇혀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야말로 딱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얽매이지 않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조르바를 보면서 제 시야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③ 학문의 즐거움 (히로나카 헤이스케 저/ 방승양 역)

학문의 즐거움을 찾고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는 공부가 즐거운 이유는 배울수록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며 자신이 학문을 하며 깨달은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재를 동경합니다. 이 책을 쓴 작가도 필즈상을 수상한 수학자라서 관심이 갔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끈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학자들은 몇 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보다 머리가 뛰어난 ‘천재’를 접하는 일도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저자가 썼던 방법은 ‘나는 바보니까’라고 하며 마음을 비우고 다시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담감을 내려놓고 끈기 있게 연구한 결과 저자는 최고령 필즈상 수상자가 됩니다. 제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위에 더 많은 천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때 진짜 도움을 주는 것은 천재성이 아니라 끈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2015 식물생산과학부 -

① 국경 없는 피자들 (손정목 저)

국제 구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내전과 폭탄 테러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의료장비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국경없는 의사회’의 사람들을 보며 함께 현장에서 뛰고 싶다는 욕구가 솟구쳤습니다. 또 국제구호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깨닫고 국제의료원이라는 꿈에 자부심을 갖고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정기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료봉사라는 명분하에 나치의 만행에 침묵하는 등 모호한 선악의 경계에서 있는 ‘국경없는 의사회’의 이면을 보고 극악한 범죄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인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의료인으로서 차별없이 범죄자들도 치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눈과 귀를 닫고 중립을 주장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의료인으로서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으며 국제구호에 대한 환상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② 생각하는 생물학 강의 (유영제 역)

TED에서 과학의 융복합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강연을 보면서 융합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책을 찾아보다가 OO대학교 유영제 교수님께서 공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신 생물학 강의를 담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생물학과 공학을 왜 연결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책을 펼친 저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과학의 융합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한 인공혈장이 가장 흥미를 끌었는데, 이처럼 의학과공학의 융합이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가치를 느꼈습니다. 또 과학의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진학 후 의학, 공학, 자연과학 등이 공계열의 학생들과 함께 자신들의 생각을 내놓고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와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과학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③ 철학과굴뚝청소부 (이진경 저)

2학년이 되고 허리통증이 심해지면서 침을 맞으러 한의원에 자주 드나들고 고등학교에서는 체력 경쟁이 문제라는 말을 실감했을 때,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건강해 지는지 알려주는 책인가 싶었지만 목차를 보고 단순히 건강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생리학을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인체의 모든 현상이 ‘생존’을 위해 치밀하게 계산되어 생겨난 결과임을 깨달았고 이를 통해 생물의 다양한 현상들을 공부하는 것이 생명체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책을 읽는 동안 간호학과 진학을 희망하면서 저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였고 건강이 얼마나 쉽게 나빠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후 허리를 흰 자세로 자주 앉아 있던 습관을 바른 자세로 바꾸려고 노력했고, 틈틈이 허리운동을 하며 몸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노력해야 내 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2015 간호학과 -

이화여대**I. 자기소개서 작성법**

- 자기소개서란 자신의 특성, 흥미와 적성, 진로희망 등과 관련한 본인의 성장 이야기를 기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상적 언어로 본인의 우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례, 직접 경험한 사건 등을 포함해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고교 과정 중에 경험한 모든 사건을 나열하려 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고려하거나 여러 경험을 통해 키워진 본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선택적 사례를 인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본인의 글 솜씨를 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소서에는 필력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평가되는 자료이므로 서툰 문장, 어눌한 표현이라 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기만의 개성을 담아 기술하기를 권한다.

1번 문항) 학교생활 충실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항이다.

학생부에 기록된 교과학습 내용에 추가해, 본인의 학업역량을 보충 설명할 수 있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특정 교과 분야에서 우수성이 있는 경우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내용을 기술할 수 있으며, 특정 시기에 학업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를 기술함으로써 대학에서의 기초학업역량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번 문항) 본인의 우수성을 우선순위로 설정해 어필할 수 있는 문항이다.

막연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경험, 사실 등의 근거를 들어 본인의 역량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부 위주 전형의 경우 지원자의 학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다.

3번 문항) 학교생활 중 사회적 경험에 관해 기술해야 한다.

인성과 관련해 종합평가로 진행되므로 깊이 고민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적이 기술이 가장 바람직하다.

II. 문항별 작성 유형 및 사례

-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된다는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인다(기적의 자소서 작성법, 해익득 자소서, 대입 자소서 작성 바이블, 자소서 면접 족집게 특강, 뽀빠는 자소서, 자기소개서 대필 등)
- 자기소개서는 NAVIGATOR다. 자기소개서는 입학에 관련된 것이므로 목적에 맞게, 학업역량, 학교활동을 얼마나 잘 했는지, 학교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공동체 의식을 잘 키웠는지 등
- 학생부만 가지고 평가는 할 수 있지만 학생부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열정이 생겼는지, 어느 부분에 씨앗이 더 컸는지 등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소서를 잘 활용하여 학생부의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읽어주세요 라는 방향등을 켜주는 문서라라고 생각하면 된다.

1번 문항.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 학교생활 충실정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항

: 학업역량) 개인의 학업역량의 우수성을 성적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기술

1번 문항은 학업역량을 쓰는 거다. 무엇보다도 학업역량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은 성적이다. 교과발달을 보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거기에는 이수한 교과목과 등급으로만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학업역량을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한 데 그것을 성적 이외의 것으로 표현해 주면 좋다. 성적 이외에 내가 노력한 경험치를 가지고 나는 이 정도의 학업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학에 오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함

1) 교과공부 스토리: 지적탐구심, 지적통찰력

- 나는 무엇보다도 지적인 탐구심, 통찰력이 있다. 어떤 학문을 하다보면 학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길이 있다 탐구의 길을 내가 맛 보았다
- 사학과 지원자가 나는 그 어떤 과목보다 한국사를 너무 좋아해요. 본인은 한국사 공부를 할 때 마다 가슴이 뛰다. 과제를 진정성 있게 하고, 박물관, 역사관을 찾아감, 그래서 학생부를 다시 보면, 한국사 등급과 세특에 한국사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이 잘 기술되어 있음. 그렇게까지 탐구심이 있는 경험이 있다면 대학에 와서도 어떤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아주 훌륭히 마스터 할 수 있다고 봄

수학교과만큼은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등급은 4등급 수준이었습니다. 수학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교과서부터 꼼꼼히 공부하였고, 수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서 온몸이 짜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반 수학 도우미를 하면서, 고3때는 2등급 성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학심화반에 선발될 수 있었고, 선생님과 함께 수학문제풀이를 토론 형식으로 풀어가면서 초보 수학자가 된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2) 심화학습 스토리: 지적탐구심, 지적통찰력 -> 심화학습 도전

- 주요교과 의 경우에는 위계가 잘 설계되어 있는 교과이고 일반적인 교과말고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심화 과목을 하였다.

3) 문제 상황 -> 극복 과정 -> 좋은 결과: 자기주도성 표현

- 나만의 공부법, 성공드라마, 자투리 시간 활용 기술
- 간혹 무기력해져나 교과에서 곤란, 역경의 상황을 학업이라는 것으로 잘 이겨낸 경험

~OO고에 지원하였으나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등학교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첫 학기 성적은 중하위권 수준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전교 등위를 유지한다고 자신하였지만,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자 성적은 추락하였습니다. 그2가 되어 외교관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을 놓았던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고 사회 교과목에도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꿈을 향한 노력이 지속되어 고3에는 상위권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학습법 소개

- 예: 스터디 방법, 교재, 자료 활용법, 공부 비법 등
- 성적이 우수한 학생, 전교과목이 모두 우수한 학생, 오답 노트 등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과학습을 충실히 하였으며 주요교과는 물론 예체능 과목 모두 열심히 참여하여 전 교과 내신 성적을 우수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어떤 교과목이든 배움의 자세로 수업에 임하였고, 수행평가 과제도 최선을 다해 완성하였습니다.

2번 문항.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활동(교과 및 비교과 포함)을 3개 이내로 기술하세요.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1500자 이내)

: 자기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문항

- : 학교활동): 학교 생활의 충실성, 전공 잠재력을 어필 할 수 있는 문항, 활동의 나열보다는 중요도, 의미, 곤란도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기술**
- 학교 활동을 얼마나 잘 했는가. 이대는 자율문항이 없어서 진로희망이나 전공 선택을 묻는 문항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문항을 잘 활용해서 내가 그 전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우수성이 있습니다 를 표현하는 데 잘 활용함.

1) 꿈을 위한 열정과 노력

-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뇌과학자 되어야 겠다. 독서를 시작함, 과학캠프에 참여하면서 나의 경험이 발전하는 과정을 기술

고1때 과학캠프를 다녀와서 뇌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관련 도서를 찾아 공부하였고, 과학 동아리에서 탐구주제로 ‘뇌와 마음’을 정하여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탐구심이 강한 편이라 뇌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였고, 교내 과학토론대회에 나가서 ‘뇌와 마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여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 표제어를 사용하여 경험 또는 역량 어필

- 학교 활동이 3개이상 일 때 역량으로 묶어서 표제어를 달아서 기술하는 방법,
- 저는 외국어를 누구보다 역량이 탁월합니다. 영어활동, 대회 경험 등을 ‘외국어 역량’이라는 표제어를 다는 방식, 저는 외국어역량이 탁월합니다. ‘정보처리역량’ 제목으로 카테고리를 묶음 ‘리더십역량’ 등

독서는 나의 삶
제게 독서란 삶의 일부입니다. 독서가 제게 준 큰 선물은,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준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인문논술 경시대회에서 많은 수상을 할 수 있었고,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하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토론의 여왕이 되다.
~~~~~

**3) 전공 잠재력을 보여주는 내용**

- : 내가 한 활동이 흩어져 있지만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잘 연결되어 있음**
- 뭐든지 매체를 가지고 만들기를 좋아해서 융합콘텐츠학부, 교육공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매체를 활용한 자료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학교를 알리는 UCC제작 공모에서 수상을 한 후, UCC동아리를 창단하였고, 친구들과 주제를 결정하여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환경 보전 UCC대회’에 참가하여 콘텐츠 개발, 자료 제작, 편집 등을 직접 하였고, 수상은 못 하였지만 콘텐츠의 매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 4) 의미있는 활동/경험 기술

: 날개로 기술

- 인문계열 학생이 엘텍 공과대학을 지원하고 싶다면 자연계 베이스인데 내가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하나. 2번 문항을 잘 활용하면 좋음. 공대는 자연계열 계통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환경을 주제로 한 토론을 하다 보니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교 과정에서는 정치경제적으로 공부했다면 대학에 가면 환경공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연결 지을 수 있다면 가능함. 연결고리가 중요

**3번 문항.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리더십 발휘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세요(1000자)**  
: 공동체 정신) 학교생활 중 사회적인 경험 기술, 인상 관련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되므로 갈등의 곤란도 고민한 필요 없음. 사회성, 대인관계, 공감 및 배려, 리더십 등 사실적인 기술이 바람직함

-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 보다는 사례로 설명함

#### 1) 학습력 제능 기부 사례

친구의 공부를 도와주는 공부방'에 처음 참여했을 때 제 역할을 지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인식해 문제를 풀어주는 역할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를 돕는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교과공부에 질문이 있을 때 친구들은 저를 '작은 교사'로 부르곤 하였습니다.

#### 2) 동아리 등 학생 생활 중 갈등, 소통 문제 발생, 나의 갈등 해결 노력

동아리 축제를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역할 분담을 하는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모두 대표 역할을 하고 싶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동아리 축제가 성공적이기 위하여 누군가는 과정의 일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그 것에 동의한 친구들이 역할 나누기를 새롭게 하여 축제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3) 실천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 깨달음

오해가 있었던 친구와 화해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친구가 너무 아속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난 후,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내 입장을 먼저 이해받고 싶었던 욕심이 앞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도 나와 똑같은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대

※ 2016, 2017 학생부전형 가이드북

### I.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지원자의 학교생활에 대한 사실이 기재된 자료라면, 자기소개서는 이러한 사실의 인과관계 및 의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원자가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 위주의 기록보다는 활동의 동기와 과정, 역할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자기소개서 작성 TIP

##### (1)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도록 작성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 자체를 반복하는 것은 좋은 자기소개서가 아닙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기록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 (2) 단순한 실적의 유무보다 지원자에게 미친 영향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작성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실적을 확인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지원자의 활동이 어떤 동기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과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3)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선별하여 작성

자기소개서에 고교 재학 중 해온 모든 활동을 남김없이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별하여 각각의 중요도를 부여해보세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각 활동의 중요도에 따라 자기소개서에서 강조해야 할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4) 스스로, 솔직하게 작성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검색시스템에서 표절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표절로 밝혀질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자신만의 경험을 자신의 목소리로 말해주세요.

**(5)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반드시 준수**

공인어학성적, 교과관련 교외수상실적 등 작성 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유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항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1번 문항은 지원자의 학업에 대한 목표의식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펜타곤 5요소 중 지원자의 학업역량과 지적탐구역량을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학습방법, 성적향상 경험, 자기주도학습 경험뿐만 아니라 정규 수업과 방과 후 학교, 수행평가, 각종 탐구활동, 보고서 작성, 토론이나 발표, 교내상 수상경험, 독서활동 등에서 나타난 자신의 관심과 동기, 학업적 장점에 대해서 기술해주세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얻은 성과뿐만 아니라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한 과정, 달라진 점, 배우고 느낀 점도 함께 기술해주세요.

**평범한 사례**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시간에 더욱 집중하며 시간 투자도 배도 늘리는 등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 모의고사에서도 ○○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 본인의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나 경험이 추상적이며, 단순한 실적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례**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등급이 하향세를 보이기 시작해 ... 제 공부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방과 후에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였고 ... 3학년에 올라와서는 전체적인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 본인의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며, 단순한 실적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사례**

...시를 배우면서 화자의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는 구절을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시대적 배경, 작가의 삶에 대해 알아보고...의문을 가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국어 공부가 재미있게 느껴졌고, 교과 학습 외에도 국어 관련 교내 활동에 열심히 참여... 성적 향상과 함께 교내 ○○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 교과와 관련된 노력을 과정과 함께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사례**

유독 물리 과목에서 OO 현상이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 실험을 통해 확실하게 알고자 학교 과학실험실에 있는 자석, 코일, 감류계를 이용해 ... 직접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교내 과학OO 대회에 위 내용을 가지고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교과와 관련된 노력을 과정과 함께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문항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1500자).**

2번 문항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 또는 본인 생활에서 의미 있게 생각하는 내용을 3개 이내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펜타곤 5요소 중 지원자의 지적탐구역량 및 성실성, 자기주도성/창의성, 공동체의식을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본인의 교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을 중심으로 스스로 노력한 점과 본인의 열정을 보여주세요.

**평범한 사례**

저는 밴드부에서 보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3년 동안 보컬로 활동한 이유는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음악이 주는 자유로움과 ...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 학술제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무대를 더 멋있게 꾸미고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 구체적인 활동 경험보다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느낀 점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는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아 확실한 진로를 정하지 못했지만, 이 활동을 통해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위의 기대나 세상의 평판이 아닌 저의 능력이나 가치관과 흥미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고, 이를 통해 진로를 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활동 경험보다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느낀 점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사례**

...건의함 사업이 학우들과 소통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교회장에 당선 후, ... 페이지를 개설하여, ..진행상황 보고, 실시간 건의상답 등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학생회를 지지하는 응원글도 생겼습니다.

⇒ 학생회에서의 본인의 역할과 활동 및 성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사례**

...건의함 사업이 학우들과 소통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교회장에 당선 후, ... 페이지를 개설하여, ..진행상황 보고, 실시간 건의상답 등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학생회를 지지하는 응원글도 생겼습니다.

⇒ 학사회에서의 본인의 역할과 활동 및 성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하고 있습니다.

#### 긍정적 사례

생명과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고자 생명과학동아리에서 활동하였습니다. 2년간 동물 박제실험, ... 실험 등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동아리 발표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실험과정조사를 맡은 부원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실험결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였고, 발표도 허사가 되었습니다. ... 이 일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몫을 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 동아리에서 경험한 구체적 활동 내용과 본인의 역할, 느낀 점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문항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3번 문항은 본인의 학교 생활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펜타곤 5요소 중 지원자의 성실성, 자기주도성/창의성, 공동체의식을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본인이 고교생활 중 공동체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나눔과 배려, 협력, 책임감, 성실성, 리더십 등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일반 사례

기숙학교... 모두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서 ... 저는 그들의 생활패턴에 맞추려고 노력했고,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항상 방을 깨끗이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룸메이트들과 다툼 없이 지내며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지원자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과정에 대한 기술 없이 노력한 사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 일반 사례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기숙학교입니다. ... 모두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서 ... 저는 그들의 생활패턴에 맞추려고 노력했고,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항상 방을 깨끗이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룸메이트들과 다툼 없이 지내며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지원자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과정에 대한 기술 없이 노력한 사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 긍정적 사례

교내에 광고와 관련된 활동과 정보가 부족하여 ...을 위해 OO지역 고등학생 연합 동아리를 창설하였습니다. 갑자기 동아리 규모가 커지자 ...갈등들이 발생하였고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부원과 임원 간의 소통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쪽지를 활용해 일정을 알리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게 되었고, 의견충돌이나 갈등이 최소화 되어 원활히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 갈등 해결을 위한 본인의 역할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긍정적 사례

교내에 광고와 관련된 활동과 정보가 부족하여 ...을 위해 교내 학생들과 연합 동아리를 창설하였습니다. 갑자기 동아리 규모가 커지자 ...갈등들이 발생하였고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부원과 임원 간의 소통 부재가 원인 이라고 생각하여 쪽지를 활용해 일정을 알리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게 되었고, 의견충돌이나 갈등이 최소화되어 원활히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 갈등 해결을 위한 본인의 역할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긍정적 사례

학교생활 중 아직 사용 가능한 펜들을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기부할 수 있는 OO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 OO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만들어 교내에 붙이고, 각 반에 들어가 홍보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갖는 학우도 몇 없었고, 모이는 펜도 적었지만 꾸준히 홍보한 결과 약 150개의 펜을 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O활동을 통해 현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방법을 배웠고, 나눔의 즐거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 학교생활 중 나눔을 실천한 경험을 구체적 과정과 본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번 문항.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나 지원자의 교육 환경(가정, 학교, 지역 등)이 성장에 미친 영향 등을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1,500자 이내)**

4번 문항은 2017학년도부터 활용하는 문항으로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노력한 과정, 그리고 교육 환경이 성장에 미친 영향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학교생활 중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원자가 전공과 진로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적어주세요.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 반드시 전공과 밀접한 '활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앙대학교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전공을 미리 학습하거나 전공과 관련된 '체험'을 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점을 알려주세요.

지원자의 교육 환경이 다른 만큼 경험도 다양할 것입니다. 현재 지원자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 등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극복했는지 알려주세요. 이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를 둘러싼 교육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장명, 직위 등)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을 금하며, 해당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평범한 사례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는 한반도라는 지리적 이점에 대해 공부하면서 ... 물류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제물류학과에 진학하여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우리나라 물류산업을 이끄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본인의 관심이 어떠한 노력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내용 없이 앞으로 하겠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기술하고 있어서 지원자의 현재 모습을 알기 어렵습니다.

#### 긍정적 사례

...대학 진학 후, ...에 대한 경제문제를 분석하여 ...에 기여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신문을 구독하였고 꾸준히 경제 기사 스크랩을 하였습니다. ...경제 용어를 정리하고 기사를 요약하였으며 ...하면서 경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되었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영자신문에도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본인의 진로희망과 연계하여 지적탐구역량을 위한 노력들을 구체적인 동기 및 과정과 함께 기술하고 있습니다.

### 포스텍

#### I. 자기소개서 문항별 포인트

**1번 문항.**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1) 의도는 “지원자가 고등학생 시절에 (자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의) 학업성취를 위해 노력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대학에서의 좋은 학업성취의 바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입학사정관에게 알려 주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제한사항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배우고 느낀 점 중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1번 문항에 답할 때 문항의 의도와 제한사항을 헤아려

① 다른(예: 초등학생, 중학생) 시절이 아닌 ‘고등학생 시절’,

② 또한, 다른 과업이 아닌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기술해야 한다.

③ 특히 단순한 결과보다는 왜,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했는지’

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1번 문항은 교과 관련 활동, 특히 대학 입학 후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된 학업에서의 성취과정과 성장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2번 문항.**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1500자 이내).

1) 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등과 같은 비교과 관련 활동(교과 관련 활동도 포함 가능) 중 지원자가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성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3번 문항.**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1)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협업능력 등에 초점을 둡니다.

2) 포항공대의 경우 거의 모든 학생이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이공계 연구 성과가 주로 연구자들 간 협업으로 산출되므로 포항공대 입학사정관은 3번 답을 통해 지원자의 인성이 포항공대에 적합한지 평가하고자 합니다.

**4번 문항.** 자신에 대해 좀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지원동기, 자신의 성격적 장단점, 재능 및 특기, 경험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1~3번 문항에서 표현하지 못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함으로써 지원자가 포항공대에 입학하기에 합당한 인재임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